

## 韓國漢文學史에 표상된 中國 西湖의 전개와 그 지평\*

김동준\*\*

<차 례>

1. 머리말
2. 杭州 西湖의 인문지리 개략
3. 高麗時代, 西湖 접촉의 초기적 양상
4. 朝鮮前期, 西湖 이미지의 확장과 분화
5. 朝鮮中期, 西湖 접촉의 다양화와 동경의 심화
6. 朝鮮後期, 西湖 문화의 확대·심화와 審美的 點景化
7. 문화의 轉有와 西湖의 여백을 다시 생각하며

###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한문학사에 자취를 남긴 중국 杭州 西湖의 표상을 살피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통해 문화적 轉有의 현상과 그것의 의미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제2절 '杭州 西湖의 인문지리 개략'에서는 본고 이해의 기초가 될 만한 중국 서호의 문화사적 변천 과정을 요약하였다.

본문부에서는 고려후기부터 조선후기까지로 시기를 정하여 西湖의 표상 변화와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에 제3절에서는 西湖 접촉의 초기 시대라 할 수 있는 고려시대의 양상을 탐색하여, 遊興의 공간 또는 매화의 고결함이 주도하는 장소로 서호가 형상화되었음을 살폈다. 조선전기를 다룬 제4절에서는, 西湖圖가 향유되는 양상, 중국의 서호와 漢江의 서호가 교차되는 모습, 그리고 매화의 이미지가 분화되는 과정을 살폈다. 조선중기를 대상으로 한 제5절에서는 서호에 대한 접촉의 다양화, 선망의 심화와 더불어 특히 志士의 공간성이 부각되어 가는 양상을 탐색하였다. 이어 제6절에서는 조선후기를 대상으로 삼아, 서호에 대한 친밀도가 더 높아

\* 본고는 2013년 한국고전연구학회의 기획주제 '고전문학과 (중국) 강남'의 발표회에서 진술한 내용을 재정리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지고, 조선과 중국 문사의 공통 화제가 되었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서호를 美的 공간으로 인식하여 조선의 현지에서 點景化하려는 욕구가 증대했음을 밝혔다.

결론부에 해당하는 제7절에서는 서호의 사례를 통해 문화적 전유가 지닌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았다. 그 결과, 수용지에서의 자기 조건에 상응하는 형상으로 서호가 역사적으로 再造型되었음을 밝혔으며, 더 나아가 ‘문화적 전유의 경계선에서 창의적 출발이 시작될 수 있다’는 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韓國漢文學史, 西湖, 西湖圖, 轉有, 매화 이미지, 志士의 공간, 點景化, 再造型.

## 1. 머리말

‘한국고전문학과 중국 강남’이라는 기획주제에 호응하여, 한국한문학사에 자취를 남긴 중국 杭州 西湖의 표상을 살피는 것이 본고의 일차적 목적이다. 이는 중국 서호의 수용사를 개관하는 작업에 해당하겠지만, 특정한 문화적 인자가 물결처럼 이동하여 새로운 시대와 지역에서 새롭게 재조직되는 현상, 곧 문화적 轉有<sup>1)</sup>의 현상을 고찰하는 데도 중요한 예시가 될 것이다.

중국의 특정 명소에서 발원한 문화적 양식이 주변 국가에서 전유되는 사례로 널리 주목받았던 대상이 ‘瀟湘八景’이다. 洞庭湖 주변에 포진한 瀟湘八景은 시문과 그림을 동반하며 독특한 八景文化를 형성하였고, 점차 한국과 일본 등으로 전파되면서 동북아시아 팔경문화의 자장을 조성하였다.<sup>2)</sup> 그런데 시문과 그림에 표상된 소상팔경 문화와 겹쳐지면서 새

1) 본고에서 사용하는 전유(appropriation)의 개념은, 특정 기호(예컨대 문화적 인자)가 놓인 본래의 맥락을 변경함으로써 그 기호를 다른 기호로 작용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의미를 갖게 하는 과정을 지칭한 것이다.

2) 소상팔경에 대한 회화와 문학 분야에서의 성과로, 안휘준, 『한국의 瀟湘八景圖』, 『한

롭게 동북아시아인의 문화적 동경과 표상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杭州의 西湖이다. 일본의 琵琶湖가 서호와 대비되는 이미지를 얻는 과정이나 安南 하노이의 西湖가 그 이름을 얻는 기제, 그리고 漢江의 특정 지역[西江, 楊花渡 일대]이 西湖의 문화적 인상을 축적했던 역사 속에는 항주의 서호에서 불어온 문화적 바람[風]이 잇닿아 있다.

그렇기에 서호가 지닌 문화적 가치를 탐구한 기존의 연구도 폭넓게 보자면 문화적 전유 현상을 고찰한 의의를 겸한다. 16·17세기 조선 문인 지식인층의 江南熱과 西湖圖를 탐색한 鄭珉의 논문<sup>3)</sup>과 朝鮮時代의 西湖圖를 포괄적으로 조명한 池容煥의 논문<sup>4)</sup>이 대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sup>5)</sup> 전자는 바야흐로 西湖圖가 성행하는 16-17세기의 역사적 시공간을 포착하여 西湖圖와 江南 憧憬 그리고 강남에 대한 지적 욕구가 파생한 국내적 양상을 집중적으로 밝혔으며, 후자는 조선의 자장에서 발생한 西湖圖의 역사를 종관하며 그것의 실제와 의의를 추적하였다. 말하자면 시문과 회화에서 이미 西湖에 대한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국면이 조명되었

---

국회화의 전통], 문예출판사, 1988, 162-249쪽; 송희경, 「남송의 소상팔경도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05호, 1995, 49-84쪽; 고연희, 「소상팔경, 고려와 조선의 詩畫에 나타나는 수용사」, 『동방학』 9호, 2003, 217-243쪽; 정운채, 「소상팔경을 노래한 시조와 한시에서의 경의 성격」, 『국어교육』 79호, 1992, 255-276쪽; 안장리, 『한국의 팔경 문학』, 집문당, 2002, 5-54쪽; 여기현, 「소상팔경의 시적 형상화 양상」, 『반교어문연구』 15호, 2003, 37-64쪽; 이국진, 「조선 전기 瀟湘八景詩의 형상화 방식」, 『온지논총』 34, 2013, 7-38쪽; 한정희, 「明清代와 江戸시대의 소상팔경도」, 『온지논총』 34, 2013, 73-114쪽 등을 참조할 수 있다.

- 3) 鄭珉, 「16·17세기 조선 문인 지식인층의 江南熱과 西湖圖」,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281-306쪽.
- 4) 池容煥, 「朝鮮時代 西湖圖 研究」, 고려대 석사논문, 2008. 그는 이 논문을 다듬어 『朝鮮時代 西湖圖 研究』, 『美術史研究』 269호, 2011, 39-69쪽에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2011년 논문을 주로 참조하였다.
- 5) 이외에 윤주필, 「한국 한문학에서 본 中國 江南의 文學地理學」, 『韓國漢文學研究』 49호, 2012, 241-274쪽을 참조할 수 있으나, 西湖에 대한 논급이 부수적이고 부분적이다.

던 것이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 누락되거나 미흡하게 남아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음도 사실이다. 정민의 논의에는 16·17세기의 전후 맥락이 미처 검토되고 있지 못하며, 회화에 초점을 맞춘 지용환의 논의는 불가피하게 문학 범주의 자료와 의미가 소략하다. 이에 본고는 기성의 성과를 보완하면서 한국한문학사의 단층에서 서호가 빚어낸 다양한 인상을 개략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점은 서호라는 문화적 기호를 통해 국내에서 創拔의으로 재생산해낸 영역이다. 서호의 파장이 희미해지거나 혹은 지워진 경계선에서 새롭게 산출되었던 문학의 신경지야 말로 전유 과정의 귀착지라 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 전유는 명시적 관련성의 여백에서 오히려 創拔的인 활력을 발한다’는 명제를 최종적으로 제기해보는 것이 이 글의 또 다른 목표이다.

## 2. 杭州 西湖의 인문지리 개략

중국 浙江省에 위치한 杭州 西湖는 수려한 경관과 名人들의 작품을 바탕으로 중국 江南 문화의 중심을 이룬 곳이자, 2006년부터는 중국의 ‘5A級 旅游景區’로 지정되어 중국인과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전 근대 시기 중국의 園林, 건축, 서화, 시문, 출판 등을 말할 때 이곳을 제외하고 논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서호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후와 자연환경부터 고려해 봄직하다. 우선, 이 지역은 강우량이 풍부하고 사계절이 분명하며 호수를 중심으로 平原한 산수 경관이 펼쳐져 있다. 또한 안개가 자주 끼서 어슴푸레한 풍경이 자주 연출되는바, 험준한 북방 산악과 대비되는 남방 산수의 특색을 지니

고 있다. 平遠感, 餘白, 濕潤과 朦朧의 느낌을 주는 산수화가 이 지역에서 발전한 데는 기후와 지형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본다.

西湖는 대략 唐代 무렵부터 이미 ‘西湖’라는 명칭을 얻었던 듯하다. 隨나라에서 錢塘 縣城을 호수의 동쪽으로 이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서쪽에 놓인 호수라는 뜻으로 불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에는 武林水, 錢塘湖, 西子湖 등으로 불렸다. 반고의 『漢書·地理志』에는 ‘武林水’, 北魏 酈道元の 『水經注』에는 ‘明聖湖’와 ‘金牛湖’를 거명하고 있다. 이후 中唐 白居易(772-846)의 시문에서는 錢塘湖라는 명칭과 西湖라는 명칭이 함께 쓰이고 있으며, 北宋 蘇軾의 명작 <飲湖上初晴後雨>에서 읊은 구절 “서호를 만약 서시에 비유하자면, 질든 열든 그 화장 모두가 어울린다(欲把西湖比西子, 淡裝濃抹總相宜)”에서는 미녀 西施를 중의하여 ‘西子(湖)’로 부르고 있기도 하다.<sup>6)</sup>

전국시대 楚나라 출신[湖北省 監利縣]인 伍子胥의 사당이 서호의 동쪽에 있다는 사실과, 백거이가 882년에 杭州刺史가 되어 白堤라는 방죽을 축조했던 일, 그리고 백거이의 명작 <憶江南>, 곧 “강남을 떠올리면, 향주가 가장 그림다네. 산사에선 달빛 속에 계수 꽃을 찾았고, 관사에선 베개 머리로 조수를 보았지. 어느 날에나 다시금 노닐 수 있으려나?(江南憶, 最憶是杭州. 山寺月中尋桂子, 郡亭枕上看潮頭. 何日更重游?: 제2수)”는 이곳을 장차 문학과 역사의 명소로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五代 시기에 錢鏐(852-932)가 세운 吳越國(907-960)이 杭州를 都城으로 삼음으로써 서호 주변은 더욱 풍부한 문화적 유서를 갖게 되었다. 불교를 숭상했던 오월국은 서호 주변에 靈隱寺, 天竺寺를 비롯한 사찰과

6) 오차가 있겠으나, 四庫全書本 『東坡全集』에서 ‘西湖’는 127건, ‘孤山’은 19건, ‘錢塘’ 89건이 검색되고 있다. 직접적으로 ‘西子湖’라고 사용한 예는 검색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식의 시 구절 때문인지 조선의 문인들이 중국 서호를 ‘서자호’로 표현한 예가 적지 않다.

雷峰塔을 위시한 수많은 寶塔을 세움으로써 항주가 실질적인 명소로 부상했던 것이다. 오월국의 왕이었던 전류가 부인을 지극히 사랑하여 그녀가 빨리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불렀다는 ‘陌上花’의 고사도 이따금 시문의 전고로 사용된다.

北宋代에 들어 서호의 이름을 각인시킨 대표적 인물이 林逋와 蘇軾이다. 林逋(967-1028)는 항주 錢塘 출신의 인물로 서호의 孤山에 은둔하며, 이른바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자식으로 삼는 梅妻鶴子의 고결한 處士相을 빚어낸 인물이다. 임포의 아우라라 할 수 있는 西湖, 梅花, 鶴, 高潔의 표상은 중국의 문인뿐만 아니라 국내의 문인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四川省 출신이기는 하나 杭州通判, 杭州刺史 등을 역임하였던 蘇軾(1037-1101)이 항주자사 시절에 서호에 蘇堤를 축성한 것도 빠뜨릴 수 없는 서호의 역사이다. 아울러 앞의 <飲湖上初晴後雨>를 비롯하여 이곳을 배경으로 지은 <爲杭守陳述古作>, <孤山竹閣送述古>, <西湖送述古> 등의 詞 작품은 서호를 문학적 향수의 대상으로 이끌어 올린 중대한 자산이 되었다. 백거이, 임포, 소식의 시문집이 그 자체로 국내 문인들의 환호를 받았던 사실을 고려하면, 이 세 사람이 맺어 놓은 서호와의 인연은 후대 문인들의 관심과 선망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1127년에 南宋이 수도를 臨安(杭州)로 옮김으로써 항주는 명실상부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했다. 인구의 증가,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서호는 배(畫舫)을 띄워 유람을 즐기는 명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궁중의 요구를 수용하여 <西湖圖> 등이 제작되기 시작했다. 馬遠(1160-1225), 夏珪(1195-1224?) 등의 馬夏派가 등장하여 강남의 산수화 및 <西湖圖>를 발생시켰던 것인데, 이후 <西湖圖>는 西湖十景圖와 西湖總圖로 발전하여 清代까지 이어진다. 李嵩(1166-1243)의 전칭작 <西

湖圖卷>(서호총도 형식), 理宗(재위 1224-1264) 연간의 陳清波, 馬麟 등의 <西湖十景圖> 또한 서호가 그림의 소재로 널리 애호되었음을 알려준다.<sup>7)</sup> 또한 ‘西湖十景’은 <蘇堤春曉>, <曲院風荷>, <平湖秋月>, <斷橋殘雪>, <柳浪聞鶯>, <花港觀魚>, <雷峰夕照>, <雙峰插雲>, <南屏晚鍾>, <三潭印月>로서, 洞庭湖를 배경으로 삼는 <瀟湘八景>과 쌍벽을 이룬 만한 詩畫의 文化를 형성하게 된다. 남송 말기에 元에 대항하여 절개를 지켰던 韓世忠(1088-1151)과 岳飛(1103-1141)의 사당이 서호 동쪽에 남아 있다는 점도 역사적 典故가 되는 재료이다.

남송이 항주를 수도로 삼은 지 150년이 되지 않아 元나라(1271-1368)는 다시 수도를 오늘날의 北京인 大都로 이전한다. 이에 따라 항주와 서호는 이전에 비해 정치적, 문화적 위상이 낮아졌지만, 풍부한 물산과 수려한 경관을 유지하면서 가무와 풍류가 난만한 이른바 ‘銷金鍋(금을 녹이는 솥)’의 고장 역할을 계속한다. 원대 후기에는 西湖十景에 이어 錢塘十景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明代(1368-1644)의 강남은 전에 비해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 1508년에는 杭州知州 楊孟瑛이 방조제인 楊公堤를 축성하면서 서호 주변의 경관을 대폭 재건하였으며, 이후 여러 사람들의 노력을 거쳐 서호 주변이 더욱 화려하고 번성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명대의 서호는 산수 유람과 예술의 산실 역할을 담당하면서 문화적 중심지로 각광받았다. 袁宏道(1568-1610)의 遊記, 張岱(1597-1689)의 <湖心亭看雪> 등의 명편이 각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文瑜(1576-1655), 藍瑛(1585-1664), 齊民(미상) 등이 그려낸 <西湖十景圖> 또한 회화의 발전을 촉진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절강성 항주, 소주 일대의 산수 유람이 유행하고 도처에 원림건축이 조성됨으로써 강남은 그야말로 물산, 문화, 예술, 출판, 여행, 음식의

7) 이상의 西湖圖에 대해서는 지용환(2011), 앞의 논문, 41쪽 참조.

중심지로 그 위상을 확고하게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항주 전당 출신인 田汝成(1503-1557)이 서호 여행지인 『西湖遊覽志』24권과 『西湖遊覽志餘』26권(1547 초간)을 編刊하였으며, 명대의 대표적 산수판화집인 『海內奇觀』(楊爾曾 撰, 錢塘人 陳一貫 會, 新安人 汪忠信 鑄, 1609刊), 『三才圖會』(王圻, 王思義 부자 찬, 만력 연간 1573-1620 간행) 등에서도 <서호도>의 삽화를 수록하였다.<sup>8)</sup> 요컨대 경제적 문화적 번성에 기초하여 출판과 유람, 문학과 예술이 골고루 서호를 주목시키는 형세였던 것이다. 이중 『西湖遊覽志』<sup>9)</sup>와 『西湖遊覽志餘』<sup>10)</sup>는 국내 문인들의 깊은 관심을 받으며 서호에 대한 지식과 선망을 증대시키는 매개가 되었다.

清代에 와서도 강남 문화를 대표하는 곳으로 항주와 서호는 그 위상을 잃지 않았다. 청 제국을 이끌었던 康熙帝는 항주를 5차례 순행하며 ‘西湖十景’이라는 題字를 남겼으며, 乾隆帝도 6차례 방문하여 ‘西湖十景’으로 시를 지어 돌에 새기게 하였다. 특히 만주족인 청나라가 중원을 지배하게 되자 한족 지식인들이 이곳을 문학과 예술, 학문의 본거지로 삼았던 점을 유의해둘 필요가 있다. 북경에서 洪大容과 李德懋 등이 교류한 명사들, 예컨대 潘庭筠, 陸飛, 嚴誠 등은 항주와 소주 지역의 문인 지식인들이었음을 유의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8) 명대의 서호도 삽화에 대해서는 지용환(2011), 앞의 논문 43-44쪽 참조.

9) <西湖總叙>(권1), <孤山三提勝蹟>, <蘇公堤趙公堤楊公堤>(이상 권2), <南山勝蹟>(권3-6), <北山勝蹟>(권7-10) 등으로부터 <北山分脈城外勝蹟>(권23), <浙江勝蹟>(권24) 등으로 짜여져 있다. 명승지를 중심으로 소개된 책자이다.

10) <帝王都會>(권1-2), <偏安佚豫>(3), <佞倖盤荒>(4-5), <板蕩淒涼>(6), <賢達高風>(7-9), <才情雅致>(10), <方外玄蹤>(14-15), <香奩艷語>(16), <藝文賞鑒>(17-18), <術技名家>(19), <熙朝樂事>(20), <委巷叢談>(21-25), <幽怪傳疑>(26)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별 분류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南宋代의 遺聞, 逸話, 시문, 설화, 전설 등을 널리 채록한 결과, 후대의 중국 소설과 희곡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3. 高麗時代, 西湖 접촉의 초기적 양상

#### - 유흥 공간 및 林逋의 매화 이미지 주도하는 서호

高麗 사람에게 중국 항주의 西湖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을까?<sup>11)</sup> 洞庭湖를 배경으로 삼는 <瀟湘八景> 詩畫와 비교하면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된다. 즉, 陳萍, 李奎報, 李齊賢, 成三問, 李承召, 姜希孟, 金時習로 이어지며 瀟湘八景詩가 꾸준한 사랑을 받았던 반면,<sup>12)</sup> 고려인에게 西湖十景은 아직 분명한 인식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大同江 주변 開城을 수도로 삼았던 고려시대에도 ‘西湖’라는 명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李仁老(1152-1220)의 『破閑集』을 보면, ‘시를 잘 지었던 西湖僧 惠素’<sup>13)</sup>에 관한 일화, 李子淵(1002~1061)이 중국 潤州의 甘露寺를 보고 감탄하여 수행했던 三老에게 명하여 고려에서 비슷한 곳을 찾아보라고 한 결과 마침내 ‘京城西湖邊’에서 이를 찾아 甘露寺를 창건한 내력,<sup>14)</sup> 그리고 ‘京城西十里許’에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실로 소식과 황정견의 문집에서 말한 바 西興의 수려한 기색과 차이가 나지 않는 곳(實與蘇黃集中所說西興秀氣無異)’을 서호로 지칭하는 기사가 보인다.

그렇더라도 대동강에 위치한 이 서호에서 중국 서호와의 직접적 관련성을 고증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이인로와 李奎報(1168-1241)

11) 9세기 최치원의 경우, 溧水縣尉를 역임하며 潤州의 慈和寺 등을 방문했으니 서호에 가보았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현전 시문에서 서호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려 이전의 한문학에서 서호는 미상한 대상이다.

12) 안장리(2002), 위의 책, 37-38쪽 소장팔경시 목록 참조.

13) 생물년 미상, 義天(1055-1101)의 제자.

14) 李仁老, 『破閑集』中. 이 기사 안에 “遂相與登臨之, 喜見眉鬚曰, 且南朝甘露寺, 雖奇麗無比, 然但營構繪飾之工, 特勝耳. 至於天生地作自然之勢, 與此相去真九牛之一毛也.”라 한 구절이 눈에 띈다. 자연의 경관이 막상막하라고 하면서 둘을 비교하고 있는 대목이다.

의 문집에서 서호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려중기까지 중국 서호에 대한 접촉이 희미했음을 시사한다. 이규보의 『東國李相國集』(권5)에 있는 <次韻東臯子還古雪中見訪>의 첫 구절, “珠玉은 錢塘에 쏟아졌고, 황금은 鄞塢에 쌓였네(量珠聞錢塘, 積金見鄞塢)”<sup>15)</sup> 정도가 그나마 서호 주변 錢塘에 대한 이미지를 담고 있을 뿐이다. 남송이 1127년에 항주로 수도를 이전했던 사실과 남송 시대에 <西湖圖>가 등장했음을 감안하면 12세기까지 항주 西湖와의 활발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짐작케 된다.

서호에 대한 인식은 元 제국기에 들어 그 양상이 적지 않게 달라진다. 忠宣王을 따라 원나라에 갔던 李齊賢(1287-1367)의 경우, 『益齋亂稿』(권1)를 보면 <金山寺>, <多景樓>(潤州 소재), <吳江 又陪一齋 用東坡韻作>, <姑蘇臺>, <宿臨安海會寺> 등이 수록되어 있어 소주와 항주 일대를 방문했음을 알 수 있다. <吳江 又陪一齋 用東坡韻作>의 중 단에서 “뛰어난 오강 경치 천하에 드물다는 말은, 내가 처음 조송설(조맹부)에게 들었네. 배에다 술을 싣고 미인도 데리고 가니, 교태로운 웃음 맑은 노래에 이와 볼이 어여쁘구나. 수흥교 밑에는 백구가 나는데, 흰 물결 하늘에 닿고 하늘은 물과 닿았네. 술잔을 멈추고 달이 뜨길 기다리면서, 배가 가는 대로 밤새도록 즐길 수 있네.”<sup>16)</sup>라고 한 구절을 통해 강남의 풍류를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宿臨安海會寺>를 통해 그가 임안, 곧 항주에 머물러 시를 남겼음을 알 수 있지만, 당시 이제현이 귀양가는 충선왕을 배행했던 처지임을 고려하면 여행의 흥취를 기대하기는

15) 錢塘의 潮水 水災를 막기 위해 三國 시대 華信이 황금뎀을 내걸어 방제공사를 했기에 ‘錢塘’이라 했던 고사와, 後漢의 董卓이 鄞 지역 30년 동안 세워둔 창고 萬歲塢의 고사를 활용하고 있다.

16) “吳江清勝天下稀, 我初聞之趙松雪. 滿船載酒携佳人, 巧笑清歌玉齒頰. 停杯更待江月上, 信棹自喜風帆遲.” 이하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되는 번역이 있는 경우 우선 이를 다듬어 사용한다.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제현이 ‘서호를 명시한 예는 차라리 원나라의 문인 鮮于樞(1246-1302)의 <西湖曲>을 소개한 대목에서 더 분명해진다. 『益齋亂藁』(권4)에 전하는 긴 제목의 시 <昨見郭狷龍 (중략) 作二篇挑之>는 閔思平에게 小樂府 짓기를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중에 “鮮于樞의 <西湖曲>을 보니 ‘서호의 畫舫에 어느 집의 여인인가? 전두[돈]을 탐내어 억지로 춤을 추네(西湖畫舫誰家女, 貪得纏頭強歌舞)’라는 구절과 ‘어찌하면 천금을 아끼지 않는 장사를 만나, 桑濮에서 行露를 노래할 수 있을까나(安得壯士擲千金, 坐令桑濮歌行露)’<sup>17)</sup>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宋나라가 망하자 士族들이 이러한 식으로 사는 것을 슬퍼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우추의 <서호곡>을 인용하면서 은연중 향락과 타락의 서호 풍정을 비판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sup>18)</sup> 이는 당시 서호가 난만한 향락과 유희의 중심지로 인식되었던 시대적 정황을 대변한다.

이제현처럼 원나라에서 관료생활을 했던 李穀(1298-1351)에 이르러서 서호에서 유람한 시들이 직접 드러난다. 『稼亭集』의 <六月十五 遊西湖>(권16), <仲孚再和喜晴 仍約遊西湖 復作四首>, <送鄭仲孚遊杭州 謁丞相 五首>(이상 권17), <送順菴奉使東歸>(권18) 등이 그 예이다.<sup>19)</sup>

17) 상복은 地名으로 桑間과 濮上을 가리킨다. 禮記 樂記에 “상간·복상의 음악은 亡國의 음악”이라는 구절이 보인다. 행로는 詩經 召南편에 보이는 여희이다. 이 편은 여인들이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노래하고 있다.

18) 훗날 이제현의 소악부를 계승한 19세기 문인 李裕元은 『海東樂府』의 <西湖曲>(『林下筆記』 권38)에서 “송나라 말기의 백성들은 가난에 쪼들려, 화방에서 가벼운 치장으로 매춘을 하네. 어떤 장사가 선뜻 천금을 버리겠는가? 일조에 耽羅[제주]의 먼지[타락한 풍속]을 씻기는 어렵겠네.(景炎之族傷於貧, 畫舫輕裝自買春. 壯士千金誰肯擲, 一朝難滌耽羅塵.)”라고 하여 이제현의 서호 인상을 이어받았다.

19) <六月十五 遊西湖>에서는 “뱃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다투어 이끌어, 연꽃 구경 갈 곳 많다 웃으며 가리키네(舟人見客競來迎, 笑指荷花多處行.)”, “서호의 기막힌 풍류를 알고 싶다면, 꽃도 즐기고 향기 은은한 깊은 밤이어야 하리(欲識西湖奇絕處, 夜

이중 서호의 인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넘실대는 西湖의 물 맑끔히 씻긴 北山の 모습  
 산 아래에서 배를 타고 호수 위로 두둥실.  
 사면엔 천기가 드러나 찬란한 채색 노을이요  
 한복판 仙人의 누각엔 선명한 임금의 儀章이라.  
 아득한 흰 구름은 활을 남긴 한이 쉬였고  
 유유히 붉은 해엔 기둥에 기댄 정이 담겼네.<sup>20)</sup>  
 이 사이에 멋진 시구 없으면 안 될 텐데  
 진작부터 명성 높은 그대 있어 다행이랴오.  
 西湖水滿北山晴 山下乘舟湖上行 四面天機雲錦爛 中心仙閣翠華明  
 白雲杳杳遺弓恨 紅日悠悠倚柱情 不可此間無好語 喜君自昔有詩聲  
 - <仲孚再和喜晴 仍約遊西湖 復作四首> 제3수.

매화의 멋진 모습 몇 번이나 새로 피었던가?  
 속물이 어찌 그 자리에 끼일 수 있었으리요.  
 나를 위해 和靖의 집이나 한 번 들러 주시오  
 시 잘 쓰는 그대는 매화를 아끼는 분이시니.  
 梅花風格幾番新 俗物何曾解混真 爲我一過和靖宅 能詩便是愛梅人  
 - <送鄭仲孚遊杭州謁丞相 五首> 제5수

전자는 서호와 그 뒤편의 복산, 仙遊의 실경과 정취를 형용하고 있으며,

---

深花睡暗香生.)”가 주목되는 佳句이며, <送順菴奉使東歸>(권18)에서는 승려인 趙義旋과 함께 “畫船에 술을 싣고 서호에 띄우기도 했었네(畫船西湖載酒人)”라는 회고가 눈에 띈다.

20) ‘활을 남긴 한’은 黃帝가 승천할 적에 떨어뜨린 활을 잡고 백성들이 울부짖었다는 고사를, ‘기둥에 기댄 정’은 타향에서 기둥에 기대어 부모나 친한 이들을 그리워하는 정을 뜻한다.

후자는 매화의 고사로 유명한 和靖處士 林逋의 집을 방문해달라는 권유를 담았다. 후자 연작에는 서호의 진면목을 맛보라는 권유, 蘇杭의 경관이 자주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으나 詩仙 李白처럼 훌륭한 시인들은 사라지고 분분한 풍악소리만 울리는 오늘날의 서호가 안타깝다는 심회 등이 섞여 있기도 하다.<sup>21)</sup> 임포와 매화, 서호의 변화한 풍경에 의경이 집중되고 있는 예들로서, 장차 서호가 지닐 기본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서호의 현장에서 실경을 읊은 시들은 이외에 거의 찾기 어렵다. 이곡의 아들이었던 李穡(1328-1396) 또한 원나라에서 관료생활을 하였지만 서호에서 지은 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牧隱詩藁』(35권)에 수록된 무려 6,000여 편의 시에서, 서호와 관련하여 연상되고 있는 이미지는 서호의 수려한 풍경이나 난만한 풍류가 아니라 임포와 매화의 인상에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梅花 二首>(『牧隱詩藁』 권8) 중 제1수이다.

추수 같은 정신에 빙설 같은 모습으로  
 요대의 달빛 아래 처음 서로 만났구나.  
 나도 시를 지어 써서 西湖를 압도해볼까  
 종이 가득 굵틀대는 글씨가 질고 열고 흥건하니.  
 秋水精神冰雪容 瑤臺月下始相逢 題詩欲壓西湖倒 滿紙蛟蛇墨淡濃

시를 지어 西湖를 압도해보겠다는 구절은 아마 임포의 <山園小梅>에 나오는 “성긴 그림자는 맑고 얇은 물 위에 비껴 있고, 은은한 향기는 달빛의 황혼 아래 풍기누나(疎影橫斜水清淺, 暗香浮動月黃昏)”라고 한 구절과 蘇軾이 <飲湖上初晴後雨>에서 읊은 구절 “서호를 만약 서시에 비유하자면, 질든 얼든 그 화장 모두가 어울린다(欲把西湖比西子, 淡裝濃

21) 제3수, “西湖今古艷粧新, 一見應知面目眞. 舊日詩仙曾到處, 紛紛歌吹惱遊人.”

抹總相宜)”는 구절을 연상시킨다. 설령 이색이 뜻한 서호 시가 다른 작품이라 할지라도 매화가 서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개인사로 볼 때 李穡이 50대 이후에 시대와의 不和를 겪었다는 점도 그의 매화 시를 이해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여의치 않은 정국의 변화, 그리고 조정에서 물러나야 했던 삶에서 그는 자못 강개한 심정과 군자의 자세를 시적 주제로 삼곤 하였는데 그 속에 매화 시가 배어 있기 때문이다. 병든 몸으로 읊은 <雪>(詩稿 권14)에서 “다만 한스러운 것은 서호에 가서 놀지 못하고, 성진 그림자와 은은한 향기를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것(只恨西湖游不到, 尙疑疏影暗浮香)”이라 하여, 임포처럼 고결한 처사가 되어 매화의 진면목을 체험하지 못함을 반성하는 대목이 보인다.

<卽事>(권14)에서는 “병으로 폐해진 몸은 은퇴한 것 같고, 우환 속의 눈물은 이미 다 말랐네. 天時는 원래 일정하지 않고, 우리의 道도 본래 영성한 것이라네. 눈이 내리니 봄은 아직 차갑고, 강산에는 오늘도 해가 저 무네. 매화가 피었다가 다시 떨어지니, 머리 돌려 임포를 그리워하네.(病廢身如退, 憂居眼已枯. 天時元不定, 吾道本來迂. 雨雪春猶冷, 江山日欲晡. 梅花開又落, 回首憶林逋.)”라 하였다. 老病, 차가운 봄, 저물어가는 하루, 天時와 吾道의 불완전함을 정서적 배경으로 삼아 매화에서 삶의 고결함을 찾았던 林逋에게 자신의 심정을 문득 가탁한 것도, 서호-임포-매화-고결[志節]의 응결 속에서 배태된 시적 발상이다. 이색에게 보이는 이런 경향은 동시대 인물인 偈遜(?-1360: 귀화인)의 <病中詠瓶梅>에도 비슷한 자취를 남기고 있으며,<sup>22)</sup> 서호와 임포의 매화를 상관시키는 시적 정경은 그 이후 李崇仁, 鄭道傳 등 이색의 제자 시대로도 계속해서 번져 나가게 된다.<sup>23)</sup>

22) 偈遜(?-1360), <病中詠瓶梅>의 수함련, 『東文選』, “病愛仙人玉雪肌, 愁無健步也能移. 林逋遂有西湖樂, 何遜還成東閣詩.”

이상 고려시대 서호의 접촉 양상을 종합하면, 서호의 이름이 고려 대동강에서 발견된다는 점, 원 제국기에 서호를 방문하여 서호의 실경을 묘사한 시들이 존재한다는 점(李穀), 서호-임포-고결로 이어지는 자동적 연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색, 설손 등)을 요점으로 간추릴 수 있겠다. 하지만 현전 문집이 희소한 고려시대의 상황을 전제로 하건대, 중국 서호에 대한 갈망과 동경의 정도가 약하고, 서호에 대한 국내 문인의 인상이 임포와 매화를 주맥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고려 후기 문인들에게 蘇軾의 문집이 필독서였음을 환기하면 그 속에 있는 서호에 대한 정보가 흡수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고려의 국경 안에서 서호는 아직 주요한 코드로서 문화적 과장을 불러일으키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론된다.

#### 4. 朝鮮前期, 서호 이미지의 확장과 분화

- 〈西湖圖〉의 향유, 중국 西湖와 한강 西湖의 교차, 매화 표상의 분화

조선의 개국부터 임진왜란까지의 시기를 조선전기라 할 때, 서호의 표상과 관련하여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는 사실부터 유의해야 마땅하다. 조선의 서호가 도성인 한양성으로부터 그리 멀지 한강의 일대, 곧 지금의 麻布大橋로부터 楊花大橋에 이르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곳은 서대문을 나와 한강의 승경을 구경하기에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望遠亭, 喜雨亭의 풍광, 麻布, 蠶頭

23) 金九容(1338-1384)의 『楊若齋學吟集』(권下)에도 1384년에 大理衛(雲南)로 유배되는 과정에서 지은 시가 있으나 西湖와 직결된 시는 발견되지 않는다. <將赴雲南 泝江而上 寓懷錄呈給事中兩鎮撫三位官人>, <采石>, <岳陽樓> 등.

峯, 楊花渡의 뱃놀이가 유행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 사신이 머물렀던 태평관[오늘날의 독립문 근처]에서 서대문 바깥 한강 서호와의 거리가 가까웠으므로 이 일대는 사신을 접대하는 코스로 각광을 받기도 하였다.

한강 서호가 지닌 이런 지정학적 장점 때문에 15세기부터 서호 일대는 이미 왕족, 문인, 사신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었다. 李甫欽(?-1457)이 ‘집현전 박사에 선발되어 成三問 등 여러 사람들과 匪懈堂[安平大君 李瑢 1418-1453]의 西湖十景詩에 화창하였다’고 한 기록,<sup>24)</sup> 왕족인 茂豐副正 李摠(?-1504)이 ‘楊花渡에 별장을 짓고 小艇에서 물고기를 낚으며 스스로 西湖主人을 자처하였는데 문사들과 어울려 지은 시가 천여 편이나 되었다’고 한 전언<sup>25)</sup>이 이 무렵의 정황을 단적으로 대변해준다. 안평대군과 무풍정 등 왕족이 숭신하여 서호를 勝覽과 酬唱의 산실로 만들었던 정황이다. 이후에 별장을 마련하여 호젓한 西湖散人の 삶을 살았든, 혹은 정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도성 바깥에서 高士의 삶을 지향하였든, 이곳은 仙遊와 雅會, 酬唱과 高潔이 동시에 성행하는 장소로 바뀌어간다.

그런데 15세기부터 이곳 한강의 서호는 중국의 서호와 겹쳐지는 현상이 발견된다. 안평대군의 西湖十景詩가 과연 한강의 서호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항주의 서호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漢都十景과 西湖十景이 문인들의 애호를 받으면서 한강 서호는 종종 항주의 서호를 이끌어 들었다. 漢都十景의 경우, 15세기의 대표적 관각 문인이었던 徐居正(1420-1488)과 李承召(1422-1484)의 사례가 주목된다. <漢都十詠>은 <藏義尋僧>, <濟川翫月>, <盤松送客>, <楊花踏雪>, <木

24) 正祖, 『弘齋全書』 권60, ‘正壇三十二人’조, “嘗選集賢殿博士, 與成三問諸人, 和匪懈堂西湖十景詩.”

25) 許篈, 『海東野言』 권2, ‘戊午黨籍’, “茂豐副正摠字百源, 太宗之曾孫, 能詩書善彈琴. 構別墅于楊花渡, 具小艇漁網, 常自刺漁船. 邀詩人騷客, 日致好詩, 無慮千百篇, 自號西湖主人. 戊午杖流遠地.”

覓賞花>, <箭串尋芳>, <麻浦泛舟>, <興德賞蓮>, <鍾街觀燈>, <立石釣魚> 등을 표제로 삼아 도성 일대의 특징적 풍경을 10개의 장면으로 구성한 것인데, 이중 <楊花踏雪>과 <麻浦泛舟>는 서호의 위치와 포개지는 지역이므로 종종 중국 서호를 연상시키는 장소로도 작용하였다. 서거정과 이승소가 각각 <麻浦泛舟>의 시에서<sup>26)</sup> “서호의 짙은 화장은 西施와 닮았는데, 봉숭아 꽃 가랑비에 푸른 물결이 찰랑찰랑(西湖濃抹如西施, 桃花細雨生綠漪)”, “서호에 가서 술을 싣고 뱃놀이하며, 취하거든 和靖의 매화 가지를 꺾어가지(且向西湖載酒遊, 醉折和靖梅花枝)”라고 한 구절이 이를 증명한다. 서거정은 서호를 서시에 빗댄 蘇軾의 시를 점화하여 서호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승소는 매화를 사랑한 고산의 입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서거정은 특히 중국 서호를 연상하는 시를 많이 남겼는데 『四佳集』(권20)의 <西湖泛舟>에서는 “열 이랑 西子湖엔 가을이 한창인데, 비 내려도 절색이요 개어도 고와 모두가 맑고 호젓하네(西子湖邊十頃秋, 雨奇晴好兩清幽)”라고 읊었다. 이 역시 소식의 시<sup>27)</sup>를 點化하여 서호의 풍경을 겹쳐 형용한 것이다. 서거정의 서호 시가 잦게 소식의 시 구절을 점화하고 있음은 서호에 대한 인상을 주도했던 출처가 蘇軾의 문집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도십경과 짝을 이루는 서호십경의 경우 안평대군의 사례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안평의 서호십경은 제작 당시에 성대한 詩軸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실물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필자가 조사한 현전 자료로서 향주의 西湖十景을 시제로 사용한 예는 周世鵬(1495-1554)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武陵雜稿』(권4)에 수록된 <平湖秋月>, <蘇堤春曉>, <斷

26) 『續東文選』 권4, <漢都十詠>.

27) <飲湖上初晴後雨>, “水光潑灑晴方好, 山色空濛雨亦奇. 欲把西湖比西子, 淡粧濃抹總相宜.”

橋殘雪>, <麴院風荷>, <花港觀魚>, <兩峯插雲>은 분명히 항주의 서호십경에서 제목을 가져온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바는 이 일련의 작품이 한강의 서호를 읊은 것이 아니라 항주의 서호, 그것도 그림을 대상으로 한 題畫詩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斷橋殘雪>을 예로 들어본다.

서호 가에는 차가운 바위산이 묶은 듯이 솟았고  
산 아래 다리는 눈이 반나마 뒤덮혀 있네.

발우 씻은 高僧이 달빛 따라 건너나니

매화 즐기던 道士[임포]가 구름 속에 돌아오네.

선명한 황혼 햇살은 살아있는 그림인 듯 하고

새벽안개 끄트머리는 누런 규룡인가 싶어라.

나귀 따고 종종 이곳을 찾아갈 필요는 없으리

한 구절을 읊조리자니 귀밑털이 희고 말았네.

湖邊東出玉峯寒 山下危橋雪半殘 洗鉢高僧乘月渡 尋梅道士躡雲還  
分明活畫斜陽外 彷彿橫虬曉霧端 不用騎驢頻向此 吟成一句鬢毛斑

<西湖十景圖>의 <단교잔설>에서 흔히 발견되는 화면을 재현한 듯 보이는 시이다. 그림을 보지 않고 시상을 펼쳤다고 보기에는 <단교잔설> 그림과의 일치도가 현저하다는 점에서 題畫詩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sup>28)</sup> <단교잔설> 외에도 주세붕의 상기 작품들은 화면과 화의를 읽어 내는 감상자의 시선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제화시의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 나아가 주세붕의 생몰 연대(1495-1554)를 생각하면, 항주의 <西湖十景圖>가 16세기 전반에 국내에서 향유되고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28) 주세붕의 작품들은 서호도와 관련한 기존 해석을 재고시킨다. 지용환이 예거한 鄭士龍(1491-1570)의 <杭州西湖圖>, 宋寅(1516-1584)의 <西湖圖>, 楊士彥(1517-1584)의 <杭州圖>, 白光勳(1537-1582)의 <西湖玩月圖>, 申欽(1566-1628)의 <西湖景圖>와 <西湖八景圖>를 앞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세붕의 제화시가 시사하듯 이 무렵부터 <서호도>에 대한 기사가 드물지 않게 포착된다. 지용환이 보고한 사례들, 鄭士龍(1491-1570)의 <杭州西湖圖>와 <錢塘春望>, 宋寅(1516-1584)의 <西湖圖>,<sup>29)</sup> 楊士彥(1517-1584)의 <杭州圖>, 白光勳(1537-1582)의 <西湖玩月圖> 등이 그런 예이다. 金得臣의 『終南叢志』에 전하는 明宗 연간(재위 1545-1567)의 <西湖圖> 감상 일화<sup>30)</sup> 역시 서호에 대한 궁중의 관심을 알게 해준다. 특히 이 기사 속에는 정사룡의 시에 대해 허균이 ‘한 부의 西湖志를 56자로 다 말하였다(說盡一部西湖志五十六字中)’고 한 평가가 수록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허균이 ‘西湖志’ 곧 『西湖遊覽志』를 읽었음을 유추할 수 있겠다. 하지만 개별 그림이 아닌 <西湖十景圖> 연작에 주목한다면, 十景圖의 실체는 申欽(1566-1628)의 <西湖八景圖> 병풍에 가셔야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십경 대신 팔경을 담은 팔폭 병풍에 해당하지만 <서호십경도>의 전조가 되는 사례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한편, 『西湖遊覽志/餘』나 『海內奇觀』에 대한 접촉이 신희과 허균 이후의 일임을 고려하면 그 이전에는 어떤 그림이 중국의 서호를 떠올리게 만들었을까 궁금하게 된다. 그런 흐름에서 서거정이 감상한 <林和靖放鶴圖>(『四佳集』 권5), <姑蘇臺圖>(권28)<sup>31)</sup>, 林逋의 초상(권40),<sup>32)</sup> 南孝

29) 정사룡과 송인은 모두 沈光彥(1490-1568)에게서 그림을 받아 감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심언광이 그린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30) 金得臣의 『終南叢志』에 전하는 <西湖圖> 감상 일화에서 명종이 꺼내 놓은 서호도는 ‘一圖’(明廟嘗得一圖, 出示群臣) 즉 西湖總圖에 해당하는 한 장의 그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도 그림의 정체를 몰랐으나 오직 鄭士龍만이 ‘西湖圖’임을 말하고 그림 속에 그려진 靈隱寺, 湧金門, 蘇堤 및 錢鏐·趙嘏·林逋의 집터를 알아맞히고, 이어서 이들 인명과 지명을 사용한 칠언율시를 능란하게 지어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민의 선행 연구에 자세하다.

31) 고소대는 와신상담의 고사와 관련된 명소로서, 서시, 범려, 오왕 합려 등을 제제로 삼고 있다.

32) <宣城 盧思愼이 소장한 十畫에 題하다>(『四佳集』 권40)라는 제목 아래, 十畫의

溫(1454-1492)이 감상한 <西湖玩梅>(『秋江集』 권2)는 15세기 문인들의 그림을 통한 林逋와 杭州에 대한 관심도와 인상을 전달해준다. 남효온의 <屏風十詠>에 제시된 하위 제목은 <曳履商歌>(曾子), <東山携妓>(謝安), <西塞釣魚>(張志和), <濂溪賞蓮>(周敦頤), <武陵尋春>(도화원 기 인물), <河朔避暑>(劉松, 劉備), <東籬採菊>(陶潛), <雪中騎驢>(孟浩然), <西湖玩梅>(林逋), <赤壁乘舟>(蘇軾)이다. 이 중 <西湖玩梅>는 임화정의 처지에 자신의 감회를 포개어 매화, 거문고, 서호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데<sup>33)</sup> 끝의 구절에 “좋은 손님들이 내 집을 찾아온다 한들, 내가 느낀 이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으랴(好客縱臨門, 心事渠能知)”라고 하여, 방외인으로서 살다간 남효온 자신의 孤節한 삶을 가탁하였다. 이는 서거정이 <林和靖放鶴圖>에서 “서호 처사의 집을 찾아 가노라니, 매화는 담담하고 대나무는 휘늘어졌네. 우리 안의 학을 놓아 주어야겠지, 벌써 산중에 손님이 많이 이르렀으니.(欲訪西湖處士家, 梅花淡淡竹枝斜. 籠中有鶴須開放, 已道山中客到多)”라고 한 넉넉한 흥취와는 사뭇 정경이 다르다. 관각 문인인 서거정이 벗까지 겸한 아취의 공간으로 서호를 묘사했던 반면, 방외인인 남효온은 속세와 단절된 고결함을 부각시킨 것이다.

十景類 또는 회화를 통한 서호의 인상 형성 이외에도 조선전기의 특성을 이루는 부면으로 몇 갈래를 더 주목해볼 수 있다. 먼저, <漢都十詠>에서 보았듯이 한강의 서호를 임포가 거처했던 항주의 서호와 긴밀하게 짝 짓는 경향이다. 서거정이 <頭顱>(권50)에서 “나는 梅仙 林處士를 몹시도 사랑하나니, 장차 집을 옮겨 서호 가까이 이사하려네.(酷愛梅仙林

인물로 莊周, 伯牙, 嚴光, 陶潛, 張翰, 魏徵, 子猷, 孟浩然, 周濂溪, 和靖(林逋)을 읊었다. 임포에 대해서는 매화를 사랑하는 고결한 인물로 형상화하였다.

33) “青春到梅梢, 檻外忽橫枝. 不堪驚縮頭, 携琴到水湄. 孤山蒼萬丈, 一水碧瑤璃. 好客縱臨門, 心事渠能知.”

處士, 移家將欲近西湖.”라고 한 것이 전형적인 증거이다. 도성과 서호에서의 삶이 질적인 대비를 이루도록 하고는 있으나 이 둘이 갈등 관계를 이루지 않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달하고 안온한 삶의 조건을 누렸던 서거정으로서는 館閣에서 물러나 한가롭고 깨끗한 처사의 삶을 다시 누리려 하였을 듯하다. 앞의 <林和靖放鶴圖>에서 진술한 ‘손님이 이미 많이 왔으니 학을 놓아주어야 마땅하다’는 뜻을 추가하면 그에게 서호는 벗들을 환영하는 즐거운 곳이지 외부와 차단되어 고독한 은사가 홀로 노니는 곳이 아니다.

반면에 정치적 갈등과 저항을 감수해야 했던 이후의 문인들에게 임포와 매화의 표상은 속세와 대결하는 인격 또는 홀로 지절을 지켜내는 인간상을 뜻하곤 했다. 방외인에 속했던 남효온의 상기 작품이 그 일단이라 할 수 있거니와, 이후 士禍期와 光海君代를 거치며 상처를 입은 문인들, 節義와 비타협을 지향했던 문인들은 벗과의 만남을 즐기는 임포보다는 매화를 벗하며 孤節을 지키는 임포의 이미지에 더 무게를 두었다. 그리하여 같은 매화를 읊는다고 할지라도 그 이면에 지향하는 바가 갈라지게 되었다. 金宗直, 李滉, 奇大升 등이 쓴 매화 시에 고독하고 고결한 志士相이 많은 것은 여기에서 연유된 바가 없지 않다.

하지만 한강의 西湖라는 공간이 여전히 도성과 거리가 가까웠던 만큼 실질적인 隱逸을 보장해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공간이었다. 사회기에 해를 입고 살아남았던 문인들은 귀양지나 고향으로 물러났으며, 광해군의 실정에 항거하게 될 훗날의 문인들도 몇 사람을 제외하면 西湖에서의 은일을 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한강의 서호가 도성과 가깝기에 파생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16세기까지의 서호는 이따금 형상화된 志士의 공간으로서보다는 수창과 雅會, 그리고 잠시 도성에서 물러난 곳으로서의 의미가 우세했다고 판단된다.

이상 조선전기의 서호 인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강 서호와 중국 서호가 교차되는 교집합 부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한도십경과 서호십경 그리고 일부 서호 관련 그림을 통해 중국 서호와 임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서호-임포-처사의 문치 표상이 계승되고 있으나 館閣과 西湖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단절적 갈등관계와 연속적 조응관계로의 분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34)</sup> 덧붙여 서거정에서 보듯 蘇軾의 문집 등이 서호에 대한 정보와 인상을 제공하는 出處로 자주 사용되었음을 도외시 할 수 없을 듯하다.

## 5. 朝鮮中期, 서호 접속의 다양화와 동경의 심화

- 접촉방식의 다양화, 동경과 밀착감의 심화,  
그리고 고결한 공간성의 강화

宣祖 재위 기간(1567-1608 재위)부터 숙종 연간(1674-1720 재위)까지를 이 장에서는 조선중기의 시기로 삼아본다. 이 시기의 서호에 대한 국내의 반응에 대해서는 16-17세기 江南熱의 동기와 문화적 구원 양상을 보고한 정민의 성과<sup>35)</sup>가 두드러진다. 그가 들었던 西湖/江南熱의 성행

34) 추가하여 金允植(1835-1922)의 <錢塘秋色樓記>(『雲養集』 권10)에 전하는 錢塘의 연꽃의 국내 유입 기사가 관심을 끈다. 이에 따르면, 姜希孟(1424-1483)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전당의 연꽃 씨를 들여와 安山の 저택 연못에 심었더니 그 연꽃이 유달리 향기롭고 고왔다고 한다. 훗날 正宗이 안산을 행차하다가 그곳의 연꽃을 보고 감탄하여 안산을 蓮城이라 지칭하였으며 인재를 뽑는 시험까지 치르게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전당의 연꽃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安山の 雅號가 蓮城이 된 것은 이 때문이지만, 도성 주변의 蓮池 조성이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이기도 한다.

35) 정민(2002), 앞의 논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西湖가 당대 현실을 역투사하는 유토피아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sup>36)</sup>
- ② 이 시기에 學唐風의 영향이 강해졌다.
- ③ 『剪燈新話』, 『傳燈餘話』 등 중국 傳奇小說이 영향을 주었다.
- ④ 田汝成의 『西湖遊覽志』와 『西湖遊覽志餘』, 崔溥의 『漂海錄』 등이 널리 읽혔다.
- ⑤ <西湖圖>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다.
- ⑥ 浙江省에서 파병된 明軍과의 직접적 교류가 작용했다.

이중 ⑤는 지용환의 연구로 수용되었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明代의 화가인 文瑜(1576-1655), 藍瑛(1585-1664), 齊民(미상) 등 항주와 소주 출신 화가들이 南宋代에 발생했던 西湖十景圖를 다시 활발하게 제작하였다는 점, 소주 항주 등의 산수 유람이 활성화되면서 『海內奇觀』, 『西湖遊覽志』, 『三才圖會』, 『名山圖』 등에 서호의 판화가 插圖되었다는 사실을 특기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삼아 그는 국내인물의 西湖圖와 杭州名勝圖 감상 기록을 조사하여, 金玄成(1542-1623)의 <杭州圖>, 李好閔(1553-1634)의 <杭州西湖圖>, 申欽(1566-1628)의 <西湖景圖>, <西湖八景圖>, <吳山十景圖>, 李慶全(1567-1644)의 <杭州圖>, 李重明(1585-1672)의 <西湖圖>, 李景奭(1595-1671)의 <靈隱寺圖>, 蔡裕後(1599-1660)의 <錢塘圖>, 申得洪(1608-1653)의 <西湖圖>, 申琬(1647-1707)의 <西湖圖屏>, 金鎮龜(1651-1704)의 <西湖騎驢圖>, 洪世泰(1653-1725)의 <西湖十景圖> 등을 예거하였다. 명종이 정사룡 등

36) 이에 대한 근거로, 林逋의 고사적 이미지, 伍子胥의 怒濤와 岳飛의 忠憤으로 대표되는 지사적 이미지, 소동파와 백거이 같은 문인일사들의 아취, 사회와 전란을 겪은 지식인들이 관념한 유토피아적 이미지 등을 들었다.

과 더불어 <西湖圖>를 감상했던 일화를 상기하자면, 그 이후 서호 주변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음을 알려주는 자료들이다.

<서호도>와 관련하여 1606년에 사신으로 온 朱之蕃이 선조에게 올린 『朱太史十二畫貼圖』도 주목할 만하다.<sup>37)</sup> 吳輞川이라는 사람에게 그림을 부탁하고 주지번이 손수 글씨를 쓴 이 서화첩 원본은 ‘金山의 西湖’를 포함하여 중국의 명소를 배경으로 한 시문과 그림을 모은 것이었다. 선조가 받은 원본은 許筠의 형이었던 許篈의 주도로 副本이 제작되었으며 훗날 金左明, 柳赫然 등이 다시 부분을 만들어 많은 이본이 퍼지게 됨으로써 서호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선조가 柳根에게 하사한 부분에 남인계 문인인 趙綱, 李志定, 吳竣 등이 글씨를 쓰고 許穆이 서문을 지음으로써<sup>38)</sup> 이 서화첩은 李灑, 柳慶種 등으로 이어지는 조선후기 남인계의 보첩이 되기도 했다.

정민의 파악한 대로 <서호도>와 더불어 서호열을 고취시켰던 것은 『西湖遊覽志(餘)』, 『漂海錄』, 『剪燈新話』 등의 저술이다. 허균이 『西湖遊覽志(餘)』의 편집 방식에 따라 『江陵志』를 구성하고자 했던 사례를 위시하여 申欽이 이 책에 특별한 애착을 가진 사실도 유의할 만하다. 후기에 이르러 李宜顯, 李灑, 韓致瀾, 成海應, 李裕元 등이 이 책을 직접 언급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金昌協, 洪大容, 朴趾源, 李德懋, 朴齊家 등이 열람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더하여, 『漂海錄』과 『剪燈新話』의 영향, 그리고 절강성 출신 명나라 인물들과의 교류를 강남열의 배경으로 본 정민의 보고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이상에 대한 설명은 정민의 성과를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에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증언을 중심으로 조선중기 서호의 대

37) 이에 대해서는 유미나, 『趙斗壽 소장 千古最盛帖 고찰』, 『강좌미술사』 26집, 2006, 989-1014쪽 참조.

38) 許穆, <模朱太史十二畫貼圖序>, 『記言』 권29.

표적인 인상을 간추려보고자 한다.

조선중기에서 중국 서호와의 접촉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申欽이다. 『象村集』(권 37)에 수록된 <藍田遺壁跋>을 단서로 삼아본다. 신희은 이 글에서 1592년 연행 당시에 『서호유람지』를 구입하여 보물처럼 여겼던 사실, 1606년 병조판서에서 물러난 뒤에 이 책에서 명구를 뽑아 『臥遊清賞』으로 엮은 일을 기술한 다음, ‘조정에서 죄를 입어 시골의 백성이 된’ 현재의 시점에서 『藍田遺壁』을 편집하게 된 사연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sup>39)</sup>

(가) 지금 내가 조정에 죄를 얻어 시골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더욱 일이 없어서 날마다 『서호지』를 탐독하면서 즐기는데, 곧 『서호지』 중의 詩章과 樂府는 백거이와 소식 등 여러 군자 이하로부터 宋·元 말엽의 쟁쟁한 문사들의 것이 태반이나 되었다. 그 자취를 더듬어보면, 모두가 문단에서 으뜸인 자들이며 말세에 버려진 인재들로서, 落拓하여 시대와 어울리지 못하였거나 혹은 절개를 지켜 조정에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중략) 그 당시의 풍성한 貂蟬冠에다 긴 인끈을 드리우고 貝帶에 駿驥冠을 쓰고서 자신만 후한 은택을 누리며 나라를 병들게 하고 백성을 못살게 굴면서 스스로 의기양양했던 자들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어떠한가?<sup>40)</sup>

(나) 또 생각하건대, 사람이 우주 속에 살면서 진실로 마음에 딱 맞는 바가 있으면 밖에서 이르는 進退榮落 따위는 모두 쪽정이나 쓰레기가 될 뿐이니, 그리 되어도 그만 어그러진다 해도 그만이다. 그러나 나에게 참으로 귀한 것이 존재해 있음을 믿어 盈虛消息을 한결같이 조물주가 주관하는 대로

39) 고전번역원의 번역을 다듬어 사용한다.

40) “今余獲戾于朝，爲畎畝一氓，益無所事，日取志自娛，卽志中詩章樂府，自白香山·蘇端明諸君子以下，宋末元季之鳴者，大半焉。就徵其跡，則俱是騷壇上客，衰世遺材，或落拓不諧於時，或秉節不屈於朝。…其視當時之豐貂長組，帶貝冠鵷，厚自塗澤，病國殃民，而自以爲得志者，果竟何如也?”

따르면 귀한 옥구슬이라 해서 허름한 양가죽과 바꾸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西京의 옛 수령들은 吳門에서 장사를 하며 지냈고 江左의 영웅호걸들은 술에 의탁하여 세상을 도피하였다. 충신인 伍子胥의 사당과 岳飛의 사당에는香火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간신인 韓氏의 동산과 賈氏의 별장에는 지금도 더러운 냄새가 풍기고 있으니, 이것이 그 증거라 할 것이다.<sup>41)</sup>

(다) 나는 매년 옛날을 회고할 때마다 아스라이 서호의 湖山을 떠올렸다. 이따금 몸은 여기에 있으나 정신은 그곳으로 떠났으며, 주변의 兩峯과 三竺에서 거닐면 천상의 향기와 계수나무가 내 지팡이와 신발을 스치는 듯하였다. 그러면 더욱 내가 태어난 시기가 늦고 사는 지역이 외젓음을 한탄하였다. 뜻은 옛 현인들보다 크지만 자취는 말류에 얽매이며, 만나는 경치는 황폐하고 대하는 얼굴들은 속되다. 한번 입을 열어 품은 뜻을 풀어내고 白居易와 蘇軾처럼 광경을 즐기고자 하지만 어찌 그런 행운을 얻을 수 있겠는가? 가령 佛氏의 三生說을 믿을 만하다면 나로 하여금 후일에 서호에서 태어나 서호의 長이 되게 하면 만족하리라. 옛사람의 시에 “인생은 항주에서 늙을 만하다(人生只合老杭州)” 하였고, 또 “인생의 절반이 이 호수에 머물러 있었네(一半勾留是此湖)”라고 하였으니, 어찌 내 바람을 먼저 얻은 이들이 아니었겠는가!<sup>42)</sup>

<藍田遺壁跋>은 明代 문화에 매료되었던 신희의 모습이 선명하다. 그는 王世貞을 비롯한 明代 擬古派의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여 擬古樂

41) “抑又思之，人生宇宙，苟有會心，進退榮落自外至者，皆秕糠土苴，成亦可也，虧亦可也。特吾之良貴存焉，盈虛消息，一聽造物者主持，其不以琬琰而易羊皮也，明矣。西京舊令業市吳門，江左英豪托酒逃世，胥祠岳廟芬馥未沫，韓范賈莊流臭猶腥，茲其驗也。”

42) “余每歷遡往古，緬想湖山。有時身留神往，彷彿步履於兩峯三竺之中，而天香桂子，來襲於杖屨也。愈歎吾之生也晚，地也偏，志大於古賢，迹踣於末流，遇境則荒，對面則俗。求欲一開口抒懷，流連光景如白如蘇，胡得焉？使佛氏三生之說有憑，則令我他日生於西湖，爲西湖長，足矣！古人有詩曰，人生只合老杭州，又曰，一半勾留是此湖，詎非先獲者歟！”

府의 제작에도 남다른 활약을 보였다. 상기 지문은 중국 서호에 자신의 현실적 처지를 밀착시킬 만큼, 막연한 동경을 넘어서는 강도 높은 교감을 보여주고 있다. (가)에서 보듯이 그는 서호에 노닐었던 인물들의 懷才不遇에 대해 특히 공감한다. ‘落拓하여 시대와 화합하지 못하였으나 절개를 지켜 조정에 굽히지 않았던’ 서호의 高士들은 광해군 정권과 불화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대리 투영한 흔적이다.

(나) 또한 『서호유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오자서와 악비의 충절을 부각시키고 있다. 서호는 충신의 자취가 깃든 膾心의 공간이라는 판단이 이 지문을 관통한다. 자신에게 내재한 귀한 자질, 곧 절조를 지키며 虛虛와 消息에 의연할 수 있는 특수한 공간이 바로 서호에 기탁되어 있다. 이어 (다)에서는 서호에 대한 그의 갈망이 직접적으로 언술되고 있다. 자신을 엮어맨 말류의 시대와 속된 인물들에 비하면 서호는 백거이와 소식 같은 명사들이 노닐고 그들의 고결함을 문학으로 펼칠 수 있는 別界이다. 그렇기에 그는 ‘훗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西湖의 長이 되기 바란다.’는 꿈을 서슴지 않고 노출하였다.

서호에 대한 애착이 강렬했던 까닭에 그는 여러 차례 이곳을 선망하는 자료를 남겼다. 『象村集』권19에 수록된 <西湖景圖跋>은 서호팔경도의 畫題를 인용하면서 이곳의 ‘湖上主人’이 되고 싶다는 염원을 피력하였고,<sup>43)</sup> 권20의 <학질을 앓으며 누워서 읊다(患疾臥吟)>에서는 “햇살 따라 파초 그림자 조용히 옮겨가는데, 누워서 西湖의 八景圖를 바라보고 있다네.(芭蕉影靜輕陰轉 臥看西湖八景圖)”라고 하여 병석에서조차 <서호팔경도>를 완상했음을 알게 해준다. 특히 권19에 수록된 <서호지

43) <西湖景圖跋>, 『象村集』권20, “使我生乎杭越, 卜築於兩峯三竺之中, 則當泊舟內湖外湖之間, 尋禪靈隱, 佛國之寺, 蘇堤麴院, 柳浪花港, 抹月批風, 送老於鷓鴣鸚鵡之伴, 作湖上主人.”

후면에다 쓰다(題西湖志後)>는 신희의 서호 열망을 압축한 것인데, “전당강의 맑은 경관은 세상에는 없으니, 남쪽 북쪽 산봉우리 그 안팎은 호수라네. 어찌하면 다음 생에 서호의 장이 되어, 백거이와 소동파처럼 마음껏 놀아보랴(錢塘清賞世間無, 南北高峯裏外湖. 安得來生作湖長, 放遊如白又如蘇.)”에서 드러나듯, 서호를 돌보는 장이 되어 서호[전당강]에 살고 싶다는 바람을 길게 점찍어 놓았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이런 밀착감은 예전에는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양상이거나와 그 이면에는 명말 강남의 문인 문화 및 서호의 풍정에 대한 포괄적 관심이 스며들어 있었을 듯하다. 그 일단을 짐작케 하는 사례가 서호를 배경으로 삼는 악부에 대한 관심이다. 『晴窓軟談』(中)에는 원나라 문인 楊維禎과 薩都刺의 西湖 竹枝詞를 인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sup>44)</sup> 그 자신이 직접 서호의 낭만적 풍경을 악부체로 형상화하기도 하였다. 권4 ‘古樂府’ 항목에 속한 <子夜歌>의 제2수는 “어려서 서호 가에 살았는데, 십리가 온통 연꽃이었네. 꽃이 열매 맺기를 좋아했을 뿐, 애초에 연꽃을 따려는 것은 아니었네(少居西湖上, 西湖十里荷. 貪看花結子, 本不採蓮花)”라고 노래했다. 꽃을 꺾는 향락보다는 열매 맺는 건강함을 강조한 가사가 되고 말았지만 ‘연꽃 십리 서호’에 대한 낭만적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다.<sup>45)</sup>

그렇다면 중국의 서호가 아닌 한강의 서호에 대한 신희의 인상은 어떠했을까? 앞의 <남전유벽발>에서 서호가 志士의 공간으로 인식되었음을

44) 申欽, 『象村集』 권59. 인용된 시들은 풍류와 향락의 공간으로서 서호를 형상화하고 있다.

45) 이 무렵, 악부의 배경 공간으로서 서호가 애호되었음은 『明時宗』에 수록된 許蘭雪軒의 <西陵行>에서도 그러한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허균의 대작 가능성이 있는 이 작품은 “錢塘江上是農家, 五月初開菡萏花. 半彈烏雲新睡覺, 倚欄閑唱浪淘沙.”라고 하여 艷情的 분위기가 도드라진다.

상기하건대 그가 혹시 한강의 서호에 이런 인상을 포개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전 『상촌집』(권24)에는 그 자신의 사례보다는 주변인물의 삶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얼마간의 편린이 엿보인다. 백부인 申弘緒의 <通訓大夫行溫陽郡守申公墓誌銘>에서 ‘어떤 일을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으므로 관직을 버리고 돌아가서 西湖散人이라 自號하였다’고 한 기사, 鄭思偈의 <通訓大夫行旌善郡守鄭公墓誌銘>에서 ‘모친상과 부친상을 마친 뒤에는 西湖 가에 살면서 다시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신흙의 당대에 한강의 서호가 고결한 자들이 머무는 공간, 혹은 현실 정치로부터 물러난 장소로 폭넓게 印象化되었음을 추측케 한다.

실제로 광해군대의 한강 서호는 특히 현실 정치와 대립되는 고결한 공간으로서의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었다. 柳夢寅이 李春元에게 써준 <送聖節使李同樞立之序>(『於于集』 後集 권3)는 仁穆大妃의 폐위에 반대하다가 서호에 물러난 시기에 작성된 글인데, 자신을 위로하려는 이춘원에게 그는 이렇게 답하고 있다.

하물며 나는 오라가라며 내주는 음식[녹봉]을 물리친 채 십리 밖 西湖에서 고결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옛날에 林逋는 서호에서 매화와 학을 기르며 湧金門 안으로는 발을 들이지 않고 삶을 마쳤거늘, 나는 배 띄우고 낚시한 지 겨우 3년이지 않은가! 그대는 가시게, 나는 그대의 위로를 받을 필요가 없다네.<sup>46)</sup>

조정에서 내리는 관직을 거부하고 서호에 머무는 자신을 용금문 안쪽으로 평생 발길을 들이지 않았던 임포와 포개고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46) “況余去噲爾嗟來之食，高臥西湖十里外乎！昔林逋養梅鶴于西湖，足不入湧金門，以了其生，矧余扁舟垂釣，才三年乎！子去矣。余無以受子之吊矣。”

용금문은 도성과 재야를 가르는 경계선에 비유되고 있으므로 유몽인 자신 또한 임포처럼 절조를 지키며 살겠다는 의지를 선언한 셈이다. 그런데 유몽인의 내면에 각인된 서호의 이런 이미지는 朴世采(1631-1695)가 쓴 <西湖三高士傳 戊申元日>(『南溪集』 권83)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된다. 李基高, 成輅, 權輶의 합전을 작성하며 박세채가 떠올렸던 핵심 개념은 ‘風節’, ‘志趣’, ‘高士之義’였던바,<sup>47)</sup> 광해군의 실정에 항거하는 공간으로서 서호가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 이점은 동일한 서호라 하더라도 시대와 개인의 조건에 따라 내면화된 인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신흙, 유몽인, 박세채 등의 증언 외에도 조선중기 서호의 스펙트럼은 훨씬 다기하다. 예컨대 신흙과 더불어 명대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許筠은 중국 강남을 구경하지 못한 자신을 ‘항아리 속에 갇힌 듯한 신세’라며 탄식을 마다하지 않았을 정도이다.<sup>48)</sup> 나아가 張維가 <鏡浦臺記>(『谿谷集』 권8)에서 “鏡浦가 臨瀛에 있는 것은 錢塘에 西湖가 있고 會稽에 鑑水가 있는 것과 같다”<sup>49)</sup>한 기술을 통해 서호가 경포호까지 스며 들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다. 동경의 밀도와 비례하여 확산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47) “其跡雖亦不軌中行, 而其風節足令後人興起. 又從諸長老檢其所行志趣, 頗各不同, 然皆合乎自古高士之義.”

48) 許筠의 『惺所覆韻藁』(권18)에 전하는 <漕官紀行>에 의하면 그는 1601년 당시에 표류인 魯認을 찾아가 강남 일대의 유적을 탐문하고서 ‘항아리 속에 갇힌 듯한 내 신세가 한스러워 魯生에게 부끄럽다고 술회하였다. 또한 1605년에 朱之蕃과 梁有年을 영접하면서 남긴 <丙午紀行>(권18)에서는 주지번과 더불어 중국 서호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음이 확인된다. 주지번이 선조에게 올린 앞의 『朱太史十二畫貼圖』를 그가 못 보았을 리 없다는 점, 허난설헌의 <西陵行>을 제공한 당사자가 그 자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허균 또한 서호에 관심을 지녔던 인물이다. 다만 그는 서호라는 특정 장소에 집중하기보다는 소주, 항주를 비롯한 강남 지역 전반에 관심을 가졌다.

49) “維竊念鏡浦之在臨瀛, 猶錢塘之有西湖, 會稽之有鑑水.”

요컨대 조선중기의 서호는 회화, 遊覽誌, 소설, 악부, 인적 교류, 시대적 조건과 결합하여 관심의 폭과 깊이가 이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중국 서호가 함축한 낭만적 정경, 고결한 공간성, 문학의 산실 역할이 두루 주목되는 가운데, 특히 한강의 서호가 현실 정치와 대립하는 절조의 공간으로 부상했던 것이 조선중기 서호의 특징적 양상이라 하겠다.

## 6. 朝鮮後期, 西湖 문화의 확대·심화와 審美的 點景化

- 친밀도의 증가, 한·중 문사의 공통 화제,  
심미적 점경화의 욕구 확대

숙종 연간을 지나 영·정조대를 거치며 개항기에 이르는 시기를 조선 후기로 간주할 때, 이 시기 서호에 관한 자료는 현저하게 증가한다. 이는 자료의 방대함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서호로의 관심을 표현한 작가와 기록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관련 자료가 매우 많은 까닭에 여기서는 몇 가지 두드러진 현상에 주목해보기로 한다.

첫째, 회화 영역에서 펼쳐진 西湖圖의 향방을 주목해본다. 지용환의 보고를 다시 빌자면, ‘西湖總圖 형식의 작품이 조선후기에도 널리 감상되고 임포되었으며, 1850년대 이후에 들어 서호도에 대한 관심은 점차 孤山과 西湖處士 林逋를 은유하는 梅花書屋圖類의 그림으로 대체되었다<sup>50)</sup>고 하였다. 그의 진술 가운데 <梅花書屋圖>가 과연 서호의 임포와 상관되는 것인지 그보다 매화꽃이 유명했던 蘇州의 超山 香雪海에 가까운 것인지는 별도의 고증을 요하지만, 서호 그림이 조선후기에도 지속적으로

50) 지용환(2011), 앞의 논문 53-60쪽.

향유되었다는 견해를 수용하기로 한다.

서호도의 향유 차원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바는 궁중과 관료들의 호응이다. 먼저 궁중의 사정을 본다. 예컨대, 정조대의 초계문신이었던 李周臣이 <서호는 항주를 대표하는 경관(西湖杭州之眉)>라는 月課 賦를 지어 올려 극찬을 받았다는 기사,<sup>51)</sup> 숙종이 화가를 시켜 西湖十景圖를 그리게 하고 洪世泰(1653-1725)에게 題畫詩를 바치게 한 기사,<sup>52)</sup> 세자의 西湖十景詩에 화답하여 朴永元(1791-1854) 등 세자시강원 관료들이 이에 수창한 기사<sup>53)</sup> 등이 이와 관련된다. 이중 흥세대가 지은 작품들은 『柳下集』(권5)에 <蘇堤春曉>, <平湖秋色>, <花港觀魚>, <柳浪聞鶯>, <三潭印月>, <兩峰插雲>, <南屏曉鍾>, <雷峰夕照>, <麴院風荷>, <斷橋殘雪>의 순서로 수록되어 있으며,<sup>54)</sup> 십경의 순차가 다르기는 하지만 박영원의 작품도 『梧墅集』(권5)의 『應製錄』에 10편이 남아 있다. 박영원의 『應製錄』에는 또한 <上林十景>, <瀟湘八景>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으므로 당시 궁중의 예술적 취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숙종, 정조, 헌종의 예에서 보듯, 제왕과 왕세자가 특정 명소에 대한 그림과 제화시를 향유하고 있음은 명종이 군신들과 함께 <서호도>를 감상했던 전례를 연상시킨다.

궁중에서의 서호도 향유와 병행하여 관료들이 이를 즐긴 예는 朴泰淳(1653-1704)의 『東溪集』(권1)에 전하는 <西湖八咏>이 증거가 될 수 있다. 제화시로 추정되는 이 연작은 <蘇堤春曉>, <花港觀魚>, <柳浪聞

51) 丁若鏞, <司憲府掌令錦里李周臣墓誌銘>, 『茶山詩文集』 권16.

52) 鄭來僑, <滄浪公墓誌銘>, 『浣巖集』 권4, “上命工畫西湖十景, 賜札國舅慶恩金公曰, 洪世泰以詩名世, 可使製進十詠, 公援筆立成以進之.”

53) 朴永元, <王世子睿製詩頒示春桂坊諸臣 仍承命廣進西湖十景>, 『梧墅集』 권5, 『應製錄』.

54) 흥세대 자신도 이 일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다. 『柳下集』 권8의 <歲暮> 자주에 “余曾應製御屏畫西湖十景詩”라 쓰여 있다.

鷓>, <麴院風荷>, <雷峯夕照>, <三潭印月>, <平湖秋月>, <斷橋殘雪>의 순서로 되어 있다. 權攄(1713-1770)의 『震溟集』(권1, 권4)에 수록된 두 편의 <西子湖><sup>55)</sup> 역시 서호도에 대한 제화시였을 것으로 보이며, 申緯(1769-1845)의 『警修堂全藁』(권10)에 수록된 <所蓄西湖十景詩墨取其南屏晚鐘一丸 戲作扇頭物 有詩>는 부채에 쓰여진 서호십경시의 존재를 짐작케 한다. 서호팔경의 유행은 그리하여 徐命膺(1716-1787)의 <西湖十景古今體>에서 보듯 한강의 서호를 팔경으로 분할하여 묘사하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sup>56)</sup>

두 번째, 향주를 비롯한 중국 강남 문인들과의 교류 과정에서 공동의 화제와 관심 대상으로서 서호가 초점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면을 예시하는 근거로 다음의 몇 가지 사례만을 보기로 한다. 먼저, 朴趾源의 <洪德保墓誌銘>(『燕巖集』권2)을 본다. 이 글 안에는 洪大容의 부고를 중국으로 보낸 다음 ‘杭州 인사들의 書畫와 편지 및 詩文 총 10권을 손수 점검하여 고인의 관 옆에 벌여 놓고 통곡하는’ 대목이 있고, 洪대용과 결교한 陸飛·嚴誠·潘庭筠이 ‘다 같이 錢塘에 거주하며 문장과 예술에 빼어난 선비’였다고 진술한 부분이 들어 있다. 향주·전당 문인들과의 교류가 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음을 추측케 하는 예이다.

실제로 洪大容의 <乾淨衲筆談><sup>57)</sup>을 보면, 필담 도중에 金在行이 서

55) 權攄은 鍾峴(명동)에 살며 이인상 등과 교유한 인물이다. “東西兩施浦, 三四越溪娃. 衣裳白如雪, 軋軋手中梭. 昨日浣紗去, 今朝采菱歌. 江空望不見, 明月照荷花.”(권1), “若耶採蓮女, 逢郎江上磯. 伴羞入花去, 應須夜月歸.” 전자는 서호의 서시를, 후자는 연밥 따는 처녀를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다.

56) 徐命膺, <余居西湖 所暮朝者流峙 所上下者魚鳥 無味之中至味存焉 遂分爲十景 以各體賦其事 命曰古今體>, 『保晚齋集』 권1. 십경의 제목은 <白石早潮>, <靑谿夕嵐>, <栗嶼雨耕>, <麻浦雲帆>, <鳥洲煙柳>, <鶴汀明沙>, <仙峯泛月>, <籠巖觀漲>, <鷺梁漁釣>, <牛岑採樵>이다.

57) 洪大容, 『杭傳尺牘』, 『湛軒書』 외집 권2.

호에 대해 문자 반정균 일행이 서호의 풍경과 유서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장면과 ‘여러분[홍대용, 김재행]도 西湖를 동경하실 테니 이로써 글을 짓자는 제안이 등장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홍대용이 엄성에게 보낸 <興鐵橋書>에는 서호에 대한 관심이 도드라진다. 이 글에서 그는 ‘서호의 명승지와 당신들이 거주하는 곳의 실제 모습을 그려보내 달라며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바,<sup>58)</sup> 지인들의 고향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서호를 알고 싶은 염원의 강도가 더욱 강화되어 있다. 홍대용의 이 주문이 실현된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항주 서호와 맺은 홍대용의 각별한 인연은 박지원, 이덕무, 유득공, 이서구 등으로 이어지며 한결 실감의 강도가 높아진다. 일례로 1766년에 반정균이 홍대용에게 복숭아나무와 버드나무[서호를 환기하는 사물]를 그려주며 써준 시에<sup>59)</sup> 대해서, 박지원(『熱河日記』, 『避暑錄』), 徐滢修(『明臯全集』 권1, <送李喜經綸庵之燕>), 李德懋(『靑莊館全書』 권34, 『清脾錄』 三),<sup>60)</sup> 朴珪壽(『獻齋集』 권9, <興申幼安>) 등이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였다.

세 번째, 조선후기 서호의 인상 수용과 관련하여 필자가 무엇보다 눈여

58) “제 평생 매우 산수 유람을 좋아했지만 좁은 땅에 있다 보니 우물 안에 앉아 하늘 쳐다보는 꼴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西湖의 여러 명승지를 한갓 기록만 보며 지나 깨나 생각하다가, 여러분을 만나면서부터는 보고 싶은 생각을 더욱 금할 수 없어진지라, 마음으로 雷峰과 斷橋를 몇 번이나 왕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힘을 빌어 수십 군데의 경치를 模寫해다가 누워서 유람할 수 있게 된다면 어찌 다행하지 않겠습니까?” 이어 서호의 여러 명소 및 엄성, 육비, 반정균의 저택 등을 그려서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59) 반정균이 써준 시는 “吾家西子湖邊樹，淺碧深紅二月時。如此江南歸不得，軟塵如粉夢如絲。”이다.

60) 이덕무의 『雅亭遺稿』(권2)에 수록된 <湛軒이 소장한 杭士墨戲帖>을 참조하면, 홍대용은 항주 문인들과의 목회첩을 따로 만들어 보관했던 듯하다. 또한 이덕무의 위시 구절에 “그림 속의 복숭아나무를 지금까지 구경하니(畫裏桃株玩至今)”라는 부분은 반정균이 그려준 복숭아나무 그림을 뜻하는 것이다.

겨보고 싶은 부면은 서호에 대한 인상을 내면화하여 현장의 경관 또는 대상을 審美化하려는 경향이다. 서호를 미적인 대상으로 인식하여 이를 실재하는 실경 속에 點景化하려는 욕구가 읽혀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비유적 예문으로, 李夏坤(1677-1724)이 鄭勳의 그림 <海山亭>에 대해 평가한<sup>61)</sup> 말을 음미해본다. 즉 “三日湖는 절세미인과 같은 곳이라 意態의 갖가지가 두루 만족스럽다. 그렇지만 미흡한 바는 백사장을 그린 일대의 모습이 양귀비의 살결처럼 그저 허영게 처리되어 있으니, 백거이나 소동파가 누대와 화목으로 西子湖를 단장했던 것처럼 한다면 결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데서, 백사장 주변의 수려한 경색을 서호처럼 어여쁘게 단장하고 싶다는 욕구를 간취할 수 있다. 비유적 표현에 잠겨 있는 이 욕구는 李德懋의 시 <水標詩 共惠甫諸人<sup>62)</sup>賦>(『雅亭遺稿』권 2)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재현된다.

긴 행랑 따라 켜진 등불이 양쪽을 비춰주는데  
 무지개다리 저물녘에 걸으니 한결 시원하네.  
 바라나니, 서자호의 연꽃을 이곳에 옮겨 심어  
 아침엔 붉은 노을, 저녁엔 푸른 안개를 깔아두련만.  
 燈火脩廊射兩邊 虹橋暝踏一泠然 願移西子湖中藕 朝羃朱霞夕綠煙

61) 李夏坤, <題一源所藏海岳傳神帖>, 『頭陀草』 권14. ‘海山亭’ 그림을 평하며 “三日湖如絕色美人, 意態種種具足, 所欠者白沙一帶, 亦太眞微肌處. 若得香山·雪堂輩以樓臺花木粧點如西子湖, 足補缺也.”라 하였다.

62) 柳得恭의 『冷齋集』 권1에 수록된 <孝經橋絕句和懋官>이 이때 지은 시일 가능성이 있다. “西子湖中萬柄荷, 情知此世未能過. 孝經橋上春三月, 坐看楊花點綠波. 向昏烟色澹將消, 微辨如虹第五橋. 橋上行人雖未識, 更堪回首望遙遙. 明沙細艸小汀洲, 一曲湛湛貯綠油. 半刻支頤難理會, 東流水亦似西流.” 황혼에 지은 시이며, 孝經橋는 수표교 근처의 다리이다.

수표교 시냇물에 서호의 연꽃을 옮겨 심고 西施[西子湖가 은유하는 인물]의 규방을 단장하듯 붉은 노을과 푸른 안개로 꾸며주고 싶다는 마음을 형상화하였다. 황혼에 켜지기 시작하는 등화, 무지개 모양으로 설치된 다리의 모습도 마치 서호의 勝覽을 몽롱하게 포개 듯 느껴지게 한다. 청계천 수표교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서호의 경관이 겹쳐지는 양상이다.

조선의 특정 경관을 서호와 포개어 미적으로 포착한 또 다른 예로 申光洙(1712-1775)의 <關西樂府>(전체 108수)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서문 첫머리에서부터 서경[평양]을 金陵과 錢塘에 비교한 뒤 “우리나라가 수백 년 동안 태평하여 宦遊하는 사대부들이 뱃놀이를 하거나 누각에 올라 기생과 풍악을 누리며 쉬지 않고 이에 무르녹았으므로 秦淮의 烟月과 西湖의 荷桂 같은 즐길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金陵과 錢塘에는 대체로 唐宋의 재사들이 시를 읊어 산수를 빛내고 그로써 태평성대를 장식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악부다운 악부가 없었다.”<sup>63)</sup>고 하여 은연중 자신을 당송의 재사, 곧 백거이와 소식에 비견하였다. 또한 ‘淡粧한 미인을 잊지 못하듯이 서경의 湖山을 사모하여 이따금 꿈결에도 찾아간다’<sup>64)</sup>고 하였는데 이는 분명히 대동강을 서호와 서시에 빗대어 상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자신이 지은 108수의 악부가 ‘西都의 形勝과 謠俗, 歷代의 興替, 忠孝와 節俠, 神仙과 寺刹, 邊塞와 軍旅, 樓臺와 船舫으로부터 女樂과 游衍하는 것까지를 빠짐없이 포괄하였으므로 一部의 西關志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한 지문은<sup>65)</sup> 전여성의 『서호유람지/여』를 의식한 발

63) 申光洙, <關西樂府>, 『石北集』 권10. “平壤, 箕子·東明王之所都也, 自古號佳麗擅國中. 皇朝勅使如張芳洲·許海嶽·朱蘭嶼諸公, 或稱天下第一江山, 或稱如金陵·錢塘.. 國朝昇平屢百年, 士大夫宦游者, 畫舫江樓, 粉黛笙歌, 留連沉醉, 有秦淮烟月西湖荷桂之娛. 然金陵錢塘, 皆有唐宋才子歌詩, 輝曠湖山, 以飾太平, 東國無樂府.”

64) “愛其湖山, 如淡粧美人秀媚難忘, 往往夢想在滄江舟中.”

언이다. <관서악부> 108수에서 수렴한 재제가 전여성의 주제별 분류<sup>66)</sup>와 유사하다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신광수는 지리지가 아닌 악부를 통해 형승, 민속, 역사, 신선, 군인, 누대, 선유, 여악, 풍류 등을 골고루 담아내는 그릇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에 실제의 작품 또한 ‘西湖樂府’로 착각할 만한 이미지와 소재를 교합시켜 두었다.

西都是 곱기가 杭州와 같아 / 태평성대가 사백년이었네.

第一江山<sup>67)</sup>에 부귀를 겸하여 / 風流 巡使가 고금에 노닐었다네.<sup>68)</sup>

西都佳麗似杭州 聖代昇平四百秋 第一江山兼富貴 風流巡使古今遊

- 제1수

견여 타고 곧장 연광정으로 올라가 / 안팎 江城의 지형을 구경하니

수많은 歌樓에는 주렴이 걸혀 있고 / 허다한 돛배 商船에는 푸른 酒旗

나부끼네.

肩輿直上練光亭 內外江城看地形 萬戶歌樓珠箔捲 千帆商舶酒旗青

- 제9수

65) “凡西都之形勝謠俗，歷代興替，忠孝節俠，神仙寺刹，邊塞軍旅，樓臺船舫，以至女樂游衍之事，靡不備述，亦可謂一部西關志。”

66) <帝王都會>, <偏安佚豫>, <佞倖盤荒>, <板蕩淒涼>, <賢達高風>(7-9), <才情雅致>(10), <方外玄蹤>(14-15), <香奩艷語>(16), <藝文賞鑒>(17-18), <術技名家>(19), <熙朝樂事>(20), <委巷叢談>(21-25), <幽怪傳疑>(26)

67) ‘第一江山’의 유래와 관련하여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명나라 사신 주지번이 평양의 연광정에 올라 ‘天下第一江山’이라는 여섯 글자를 써서 현판을 걸었으나, 1637년에 청나라 황제가 이것을 보고 ‘중원에 금릉과 절강이 있으니 여기가 제일이 될 수는 없다’고 하여 ‘천하’ 두 글자만 툇질해서 없애 버리게 했다는 것이다.

68) <관서악부>의 번역과 평어 자료는 이은주의 『申光洙 <關西樂府>의 大衆性과 繼承樣相』, 서울대 박사논문 2010에서 도움을 받았다. 본고에서 인용한 평어는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소장본 [고 851.35 신6232-1] 『關西樂府』에 의거한다.

○ 평어: 항주와 전당도 이것보다 낫지 않을 것이다.(杭州錢塘, 不過如此).

강산은 烟雨 따라 날마다 몽롱한데 / 고기 문 해오라기 이리저리 왔다갔다.  
 천 말이나 되는 紅露酒와 桂糖酒가 / 봄놀이하는 畫船에 실려 있다네.  
 湖山烟雨日空濛 白鳥含魚西復東 紅露桂糖千斗酒 春游多在畫船中  
 -제50수

○ 평어: 한 편의 西湖圖이다. 인생이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통쾌하리라.  
 (一本西湖圖<sup>69</sup>). 人生到此, 方得快意)

제1수는 평양을 항주와 비유하고 있으며, 제9수는 중국 서호의 난만한 풍류를 환기시키듯 대동강의 정경을 그리고 있다. ‘항주와 전당도 이보다는 못할 것’이라는 평어는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제50수의 평어에서는 아예 西湖圖의 물큰한 정취를 그려낸 시라 평가하고 있다. 평양과 대동강의 風趣를 서호에 견주는 이런 현상은 신광수 자신이 의도한 것이기도 하고 미상의 평자가 느낀 감상이기도 하다. 작가나 독자 모두 이 시에서 서호의 인상을 강하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향락과 풍악을 읊은 제104에 대한 평어에서 능라도를 銷金島(금전을 녹이는 섬)에 빗댄 것이나,<sup>70</sup> 제105에서<sup>71</sup> “淡粧한 山水와 신선 같은 관리는, 蘇軾이 아니면 白居易가 아니런가”라는 대목 역시 서호를 환기시키는 시어들이다. 요컨대 신광수의 <관서악부>는 평양에 서호를 담고, 서호에 평양을 감쌌으므로 둘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서호와의 정서적 밀착감이 고조된 모습이다.

69) 이 구문이 다른 이본에는 “一本關西圖”로 되어 있다.

70) 제104수 “無數遊人咽管絃, 上江船夏下江船. 鳴榔盡向綾羅島, 銷破終年幾陌錢”에 대한 평어는 “平壤遊人每往綾羅島, 而俗稱銷金島, 男兒不得不銷破.”로 되어 있다.

71) 제105수, “紅幔樓船碧漢槎, 滿江簫鼓滿江花. 淡粧山水神仙吏, 除是蘇家是白家.”

서호와의 심미적 밀착감은 산문에서도 그 일단을 살필 수 있다. 李胤永(1714~1759)의 <西池賞荷記>(『丹陵遺稿』 권12)는 1739년 7월 보름에 1박 2일 동안 이윤영이 아우인 李運英, 친구인 李麟祥, 任邁 등과 서대문밖 蓮池에서 놀던 일을 서정적 필치로 기록한 것이다. 일부를 절록하여 보인다.

(가) 한양의 서쪽 성곽 밖에 사방 둘레가 50-60畝 정도 되는 연못이 있다. 연못을 둘러싼 것은 대부분이 수양버들인데 사이사이에 복숭아나무와 살구나무를 심어 놓았다. 서쪽 언덕에 심은 것이 가장 무성하고 동쪽 언덕에는 몇 그루의 버드나무만이 큰길가에 서 있다. 달구경하기가 좋은 곳이므로 꽃과 버들 속에 인가가 많다. 주립, 기둥, 대청, 난간이 물에 거꾸로 비쳐 출렁이니 마치 거울 속에 비쳐진 풍경 같다. 연못 안의 작은 언덕에는 소나무와 버드나무를 심어두었다. 요염하고 늘씬한 꽃들이 너울너울 그 사이로 비치며 雅趣를 불러일으킨다. 연못의 물은 맑으며 물에는 온통 연꽃이다. 그래서 연꽃이 필 때면 도성의 사람들 자주 찾아와서 이곳에서 노닌다.<sup>72)</sup>

(나) 任邁 형제가 쉽 없이 감탄하고 있는 차에 李麟祥이 이렇게 말했다. “서쪽 산이 연못을 안고 있는 모습은 아리따운 요조숙녀 같은데 북악산과 인왕산이 허리띠처럼 이어지는 풍경은 더욱 기이하네그려. 누대와 꽃나무가 점찍은 듯 어울린 풍경은 마치 중국 강남의 수려한 분위기가 나니 이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는구려.”

내[이윤영]가 이렇게 이어받았다.

“연못 속의 언덕에다 작은 정자 하나 세워 작은 배로 오고 가며, 버드나무

72) “漢之西城外，有池方可五六十畝。繞池皆垂柳，間種桃杏。西垞寂盛，東垞只有數柳臨大達，便宜納月，人家多在花柳中。簾櫳軒檻，倒水蕩滉，如鏡裏觀影。水中有小丘，植松柳，夭矯翳翳，掩映有趣。池水清，而遍水皆荷花，每花時，都中人士多來遊者。”

사이에는 예쁜 꽃들을 두루 가꾸어 중국의 西湖처럼 꾸미고 싶군요. 그러면 풍경과 정취가 서로 어울려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겠군요.”

그러자 백현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비록 이렇게 빼어난 경치가 있으나 대부분이 흐드러진 꽃이나 잡초 사이에 묻혀버리고 마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멋이 없는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연못을 따라 돌면서 산책하였다.<sup>73)</sup>

(가)와 (나) 사이에는 李胤永, 李麟祥, 任邁와 任邁 형제 등이 저물녘에 모여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짓는 정경을 마치 중국 강남 문인들의 雅會 장면처럼 기술한 대목이 들어 있다. 이는 (가)와 (나)에도 찾아볼 수 있는 분위기이다. (가)는 복숭아나무, 버드나무, 연꽃 등의 이미지를 점묘하여 서지를 서호인양 묘사하고 있으며, (나)는 일행 전부가 나서서 달에 비친 서지를 서호처럼 가꾸고 싶다는 뜻에 동조하고 있다. 이중 이운영이 서지 안에 세우고 싶었던 정자는 서호의 가운데 있는 湖心亭을 상상한 것으로 써 은연중에 張岱의 <湖心亭看雪>을 떠올리게 만든다. 말하자면 항주의 서호는 이운영과 이인상의 시대에 이르러 저 멀리 있는 선망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이곳 한양에서 재현하고 싶은 정경으로 질적 변화를 거쳐 가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간략하나마 조선후기 서호의 인상을 대략 세 갈래로 나누어 개괄하였다. 志士의 공간성이 비교적 강했던 조선중기에 비하면 조선후기의 서호는 또 다른 양상으로 변화했다. 궁중과 관료 계층에서도 서호를 이전에 비해 점차 가깝게 느껴가고 있다는 점, 동경의 대상으로서보다는

73) “伯玄兄弟, 叫奇不已. 元靈曰, ‘西山抱池, 明媚窈窕, 華岑仁峯, 映帶益奇. 樓樹花樹之點綴者, 若有江南畫意, 仍發移宅之願.’ 胤之曰, ‘水中丘, 若置小亭, 乘艇往來, 柳間, 遍植佳卉, 如西湖之爲, 則景與境, 乃相宜而盡美矣.’ 伯玄歎曰, ‘雖有勝地, 而多埋沒於花烟榛草間, 東人槩無風韻矣.’ 遂繞塘徘徊.”

知己의 고향처럼 친근감을 더하고 있다는 점, 자신이 서 있는 공간을 서호처럼 가꾸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이 시기 서호의 대표적 인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호를 西施처럼 곱고 수려한 모습으로 상상하여 심미적 정서를 질게 투영한 것은 이 시기의 서호 인상이 지닌 특색이었다고 할 만하다. 중국 강남의 문인 문화와 아회에 대한 관심이 이 행간에 깃든 바탕일 테지만, 서호는 조선후기 문인의 내면으로 깊숙이 파고든 선망의 공간이자 내 몸이 속한 바로 여기에서 재현하고 싶은 아취의 공간으로 전환되는 중이었다고 하겠다.

## 7. 문화의 轉有와 西湖의 여백을 다시 생각하며

한국한문학사에서의 西湖에 대한 인상을 개략하였으나 짧은 원고에 그 전체상을 포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빠진 부분도 많고 논의했어야 할 논제가 남아 있지만 전반적인 윤곽을 조망한 것으로써 1차적인 소임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가령, 중국문학사에서의 서호에 대한 인상 중에는 향락과 퇴폐, 망국의 장소로서 서호를 비판하는 시문이 많은 반면 한국한문학사에서는 비판적 논조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인데, 그에 대한 논의도 비교문학적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개항기를 거치며 동아시아 공통의 명소가 급격히 줄어들고 서구의 명소가 이를 대체하는 과정도 문화사적 과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별고에서 집중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과제라서 이 글에서는 미처 논제로 삼지 못했다.

그러나 서호가 한국문학사에 접속되어 변천해나가는 과정은 문화적 轉有란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를 되묻게 한다. 관점에 따라서는, 대국 혹은 중심지의 문화가 주변부로 전파·확산되는 일방향성을 공들여 검증할 필

요가 있는가? 라는 회의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西湖의 문화적 전승에서 고찰되었듯이 일정한 문화적 인자란 변형 없이 수용지에서 성장하지 못한다. 수용 현장에서 여러 변수들, 즉 시대적 조건, 지리적 환경, 개인사적 특수성이 모두 관여하여 재조정된 형태를 빚어낸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물길은 흐르는 법이지만 지형에 따라 흐름과 폭이 달라지고 어떤 경우에는 길을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한문학사는 서호라는 하나의 인자를 받아들여 자기 조건에 상응하는 형상으로 이를 재조형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轉有의 궁극적 지점은 어디인가? 라는 물음이 남는다. 타 지역에서 흘러온 이 인자가 수용지에서 체질화되거나 또는 그 명시적 관련성을 상실해나간다면 원형적 형태는 이미 찾아보기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그 생명을 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도 하나의 질문이 가능하다. 서론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문화적 전유는 명시적 관련성의 여백에서 오히려 創拔의인 활력을 발한다’는 명제를 떠올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문화 인자에 대한 전유와 적응의 역사가 계속되어 그것이 경계가 모호해질 만큼 체질화되고 내면화한 이후에는 무의식적 반응과 脫殼의인 창조가 발현될 수 있다고 본다.

그에 대한 하나의 가설적 예증으로서 李德懋의 <秋燈急雨>와 趙熙龍·田琦의 <梅花書屋圖>를 꺼내보고 싶다. 趙熙龍(1789-1866)과 田琦(1825-1854)의 <梅花書屋圖>는 분명히 <西湖圖>가 아니다. 그림 속에는 매화가 만발한 산, 그러니까 매화 세계의 조그만 書屋에서 어느 선비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림은 이곳이 서호라는 징표를 각인시켜 두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감상자는 이 매화와 독서인이 서호의 매화와 임포에게 아스라이 잇닿아 있을 수 있겠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 연결고리를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겠으나

이런 감상법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덕무의 <秋燈急雨><sup>74)</sup>도 그렇다. 가을 서재에서 책을 읽는 중에 갑자기 가을비가 쏟아지자 그는 이렇게 읊었다.

가을밤에 그림자 돌아보며 등잔 심지 자르노라  
 서가에는 칼과 별을 적은 책들이 꽂혀 있구나.  
 쇠아아, 이대로 쪽배 타고 바다에 넘실거리랴  
 내 서재는 빗소리에 홀연 바다로 떠나는 듯하다.  
 涼宵顧影剔燈紅 鈎錄星經插架充 頓有扁舟浮海想 秋齋忽泛雨聲中

‘갑작스런’ 가을비는 시인이 처음부터 고심하여 이 시를 짓지 않았음을 추측케 한다. 문득, 즉각적인 반응에 따라 시상이 푹 터져 나왔다고 간주하는 편이 온당하다. 이 시의 묘미는 착상의 기발함과 상쾌함에서 찾을 수 있다. 가을비 소리에 홀연 자신의 서재를 조각배 삼아 끝없는 바다로 떠나고 싶은 상상이 이 시의 눈이자 정점이다. 그런데 이 創拔的 착상은 어떻게 포착될 수 있었을까? 이덕무 자신의 개성과 숨씨가 일차적인 근거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 뒤에는 이 시를 이끌어 올린 유산이 잠복되었으리라 가설해볼 수 있다. 잠복된 이 유산은 물론 ‘잠복성’으로 인해서 그 정체를 분명히 설명할 수 없다. 이는 복합적일 수도 있고 관련의 정도도 불분명하다.

하지만 앞서 살핀 이덕무 시대의 서호에 대한 친밀감과 관심도를 고려하고, 유득공 일행과 수표요에서 지었던 시를 상기하고, <耳目口心書> (『靑莊館全書』권48)에서 ‘정신과 기운이 나른한 때에 베개에 기대어 蔡翬의 <洞庭記>나 袁中郎의 西湖·嵩山 遊記 등을 가을 때미처럼 청아

74) 『雅亭遺稿』 권1. 원제가 <穉燈急雨>로 되어 있다.

하게 읽다보면 무한한 意趣가 솟는다<sup>75)</sup>고 했던 고백을 겹쳐서 고려하면 그의 내면과 체질 속에 서호라는 인자가 무의식적으로 내재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서호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정교하게 계산된 시를 써내는 그런 방향보다는 오히려 평소 내면화되고 감성화되었던 요소가 특정한 계기에 촉발되도록 하는 방향이 창의적 작품을 산생시킬 수는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지점에서 다시 고민해볼 과제가 ‘문화적 전유의 경계선에서 창의적 출발이 시작된다.’는 가설적 명제가 아닐까 한다.

---

75) “及其風衝雨吼之宵，神沉氣翳，四體若無骨，此時可臥而不可坐，可嘿而不可言。  
(중략) 但若有瀟洒名流，不大其聲，朗朗纖纖，不急不緩。讀清新洒落之文，或蔡羽  
洞庭記，袁中郎西湖嵩山諸記，如秋蟬曳緒，則我其倚枕闔眼而耳視視似聽，稍  
可意耳。”

참고문헌

<논저>

- 안장리, 『한국의 팔경문학』, 집문당, 2002, 5-54쪽.  
 안휘준, 『한국의 瀟湘八景圖』, 『한국회화의 전통』, 문예출판사, 1988, 162-249쪽.  
 고연희, 「소상팔경, 고려와 조선의 詩畫에 나타나는 수용사」, 『동방학』 9호, 2003, 217-243쪽.  
 송희경, 「남송의 소상팔경도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05호, 1995, 49-84쪽.  
 여기현, 「소상팔경의 시적 형상화 양상」, 『반교어문연구』 15호, 2003, 37-64쪽.  
 유미나, 「趙斗壽 소장 千古最盛帖 고찰」, 『강좌미술사』 26집, 2006, 989-1014쪽.  
 윤주필, 「한국 한문학에서 본 中國 江南의 文學地理學」, 『韓國漢文學研究』 49호, 2012, 241-274쪽.  
 이국진, 「조선 전기 瀟湘八景詩의 형상화 방식」, 『은지논총』 34, 2013, 7-38쪽.  
 이은주, 「申光洙 <關西樂府>의 大衆性과 繼承樣相」, 서울대 박사논문, 2010.  
 정민, 「16·17세기 조선 문인식인층의 江南熱과 西湖圖」, 『고전문학연구』 22호, 2002, 281-306쪽.  
 정운채, 「소상팔경을 노래한 시조와 한시에서의 경의 성격」, 『국어교육』 79호, 1992, 255-276쪽.  
 지용환, 「朝鮮時代 西湖圖 研究」, 『美術史研究』 269호, 2011, 39-69.  
 한정희, 「明清代와 戶戶시대의 소상팔경도」, 『은지논총』 34, 2013, 73-114쪽.

<주요 원전자료>

- 金九容, 『惕若齋學吟集』; 金得臣, 『終南叢志』; 金允植, 『雲養集』; 柳得恭, 『冷齋集』; 柳夢寅, 『於于集』; 朴世采, 『南溪集』; 朴永元, 『梧墅集』; 朴趾源, 『燕巖集』; 徐居正, 『四佳集』; 徐命膺, 『保晚齋集』; 徐滢修, 『明阜全集』; 偈遜, 『東文選』; 申光洙, 『石北集』; 申欽, 『象村集』; 申緯, 『警修堂全藁』; 李穀, 『稼亭集』;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李德懋, 『靑莊館全書』; 李穡, 『牧隱詩藁』; 李承召, 『三灘集』; 李胤永, 『丹陵遺稿』; 李仁老, 『破閑集』; 李齊賢, 『益齋亂藁』; 李夏坤, 『頭陀草』; 周世鵬, 『武陵雜稿』; 鄭來僑, 『浣巖集』; 丁若鏞, 『茶山詩文集』; 正祖, 『弘齋全書』; 許穆, 『記言』; 許筠,

『海東野言』/『惺所覆韻藁』; 洪大容, 『湛軒書』; 洪世泰, 『柳下集』; 田汝成, 『西湖遊覽志』/『西湖遊覽志餘』; 蘇軾, 『東坡全集』 외.

ABSTRACT

Development and its Prospect of West Lake in China represented  
in Korean Chinese literature history

Kim, Dong-jun

This paper primarily aimed to examine representation of West Lake in China that left its traces in Korean Chinese literature history and attempted to survey the phenomenon of cultural appropriation and its meaning through this. Accordingly, the cultural historic change process of West Lake in China was summarized in Section 2 'Overview of Human Geography of West Lake in China.'

In the body part, I discussed representation [image] changes and the features of West Lake by appointing time from Late Goryeo Dynasty to Late Choson Dynasty. And then, in Section 3, I found out that West Lake has been shaped as a place led by the integrity of apricot flowers or space for entertainment by exploring the aspects of the Goryeo Dynasty. In Section 4 that covered the early days of the Choson Dynasty, I examined the aspect that West Lake Painting (Painting of West Lake in China) is enjoyed, crossing of West Lake of China and West Lake of Han River and differentiation process of apricot flower's image.

In Section 5 targeting the middle of the Choson Dynasty, we explored especially the aspect of highlighting patriot spatiality in addition to diversification of access to West Lake, deepening of envy. And then, targeting the late of Chosun Dynasty, I found out that familiarity on West Lake increased more, common topic of the history of Korean and Chinese literature and above all, the desire to implement West Lake in Korea by recognizing it as aesthetic space increased.

In Section 7 corresponding to the conclusion, we ruminated the meaning and value of cultural appropriation through the case of West Lake.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out that West Lake has been

historically remolded to the form corresponding to self-condition in the receptor and furthermore, we presented the thesis, 'Creative departure can be started at the boundary of cultural appropriation'.

**Key Words** Korean Chinese literature history, West Lake, West Lake Painting, cultural appropriation, apricot flower image, patriot space, remolding.

논문투고일 : 2013. 10. 28

심사완료일 : 2013. 11. 22

게재확정일 : 2013. 11. 26